

마가복음 1장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함: 예수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길을 예비하려고 온 요한을 먼저 소개하기 위함이다.

2.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용했던 말씀이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까지 예수님께 넘겨준 셈이다. 나중에 보면 제자들까지 보내준다.

3.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외치지 않고 왜 요단 강 주변, 광야에서 외쳤을까?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했다: 성도는 경건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도 없고, 땅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독 교제가 필요하다. 여호와와 증인들이 믿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여 주로 거한 곳,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갔던 곳,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셨던 곳,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던 곳, 모세가 부름 받기 전에 있었던 곳,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은 모두 광야이다. 광야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

4. 요한의 복장이 지닌 특징을 찾아보자.

1) 약대털옷: 비싼 가죽옷이 아니다. 거친 옷이다. 장점은 세탁이 불필요한 단벌 신사에게 어울리는 옷이다. 비싸고 좋은 옷은 교회 올 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형제의 기를 죽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가장 허름한 옷을 깨끗이 손질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 가장 가난한 형제가 동류의식을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이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광야로 가는 길이다.

2) 가죽 띠: 활동하기 좋게 해주는 것이다.

3) 메뚜기와 석청: 지금처럼 건강식이 아니라 거친 식사이며, 점잖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니다.

종합해보면 안락함과 거리가 먼 생활이었다.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줄이고 스스로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광야로 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이다.

5.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받기 위하여 예비조치로 (물세례)를 받았다. 그 전에 또 무슨 예비조치가 필요한가?

회개

6.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위대한 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마 11:11. 눅 7:28) 예수님은 새삼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위대한 두 분이 오셨다고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대한 잔치라도 벌여야 하는 것: 그럼에도 두 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광야로 간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광야를 찾아 헤매지 말자. 보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잠을 줄여서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 생활이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산, 혹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7.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신들에게 풀기도 감당치 못함, 나는 물론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뒤에 오신다.

8.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 흔하지 않은 아주 귀한 장면이다. 세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 장면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인류 구원: 바로 다음 장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께서 받은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걸은 것을 예수께서 다시 걸으며 이기기 위함이다.

9. 1장의 주제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내용은?

세례를 받으심: 세례란 죄를 씻음에 대한 상징인데 죄 없으신 그 분이 세례를 받는다? 황궁무지로소이다.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10.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모양인데.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대신 치르는 것: 시험을 받으셔야 하고 승리하셔야 한다. 우리가 치뤄야 하는 시험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셔야 하는데 만유의 주인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라.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자청하신 분이시다.

11.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 그런 시험도 아무런 고통 없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의 수종이 필요했던 분이시다. 가끔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이 어려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육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매사에 패배주의에 빠져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용감하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려울 때는 천사의 수종도 필요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 어려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셨다.

12. 예수님께 오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광야로 내몰아 시험을 받게 하심: 우리가 바라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완수케 하신다. 성령은 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성령을 주심사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사고 기도해야 한다.

13.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피하여 가신 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닐까? 요한은 헤롯의 비행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잡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요한과 힘을 합쳐 헤롯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할 일은 따로 있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헤롯의 불의함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모았으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헤롯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분은 조용히 물러갔다. 자신이 할 일이 따로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헤롯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진 때에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때가 되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다. 사소한 문제다 싶으면 양보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는 목숨을 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겁자가 되기도 하고 무능한 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14.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현재적 의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속한 회사와 이웃들에게서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이다.

2) 종말론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두셨다. 그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고만 기억하자. 인간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곳 이기에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 황금으로 된 12대문에도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눈물도, 괴로움도, 슬픔도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진짜 좋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사정상 잠시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도 주인집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서 너무 짹짹하게 살지 말자. 마음을 넓히고 아량을 얼마든지 베풀며 살아도 될 만큼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이다.

15.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을 버려두고 하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인구도 많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행정적인 수도였지만 외적이 침공하기 어려운 높은 산지에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자체는 큰 도시였지만 주변에 인구가 그리 많은 곳은 아니다. 교통도 그리 편한 곳은 아니었다. 반면에 갈릴리는 평지여서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다. 메가볼리란 지명이 있는데 10개의 도시란 뜻이다. 전체인구로 본다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많았을 뿐 아니라 애굽이나 블레셋을 거쳐서 아람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대로가 있어서 소문이 퍼지기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복음을 널리 전하기에는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곳이다.

16.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한 마디에 그렇게 쉽게 인생을 바꾸다니... 성경은 때때로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때가 더러 있다. 여기서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으려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나?

그렇다.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했으면 훌륭한 어부가 된 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낚는 것 말이다. 우리가 사용할 미끼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낚아야 한다.

17. 그들은 무엇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입다가: 그들 나름대로 생업에 충실하던 사람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예가 없다. 부름을 받았을 때 공통점은 버려두고 쫓았다. 이유도 없이 가쪽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구절을 적용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할 구절은 아니다.

18.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위있는 가르침: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시시콜콜한 규정의 해석이 고착이었다. 사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온갖 관심과 정열을 다 쏟은 셈이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보다는 사소한 절차 문제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는 않는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율법에 집착하도록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가르치셨다. 율법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다.

귀신들을 쫓아냄: 실제로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영적 존재이다.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은 없지만 사탄의 종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은 분명히 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갔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한 우리 근처에는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인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덤비는 법이므로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좋은 주인을 모셔 둘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해 계시도록 자리를 비워 드려야 한다.

19.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 귀신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다른가?

귀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심판자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20. 아무리 귀신들이지만 옳은 말과 듣기에 좋은 말까지 그렇게 구중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데에 귀신들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심판의 대상자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고 기뻐 것도 아니다. 말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귀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귀신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예수님은 귀신의 말로 인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족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능력이 더 있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21. 시몬의 장모를 '여자가 수종드니라'라고 말해도 되는가?

원어나 영어로는 문제가 없다. 번역상의 문제다.

22.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으면서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며 혹시 본문 이외에도 증거가 있을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으므로 결혼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고전 9:5)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특히 게바(베드로)는 전도여행을 다닐 때 부인을 데리고 다녔음이 확실하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며 더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5:21-22)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쪽을 다 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면서도 가능한 일이다. 아내도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남편과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출 21:10에 '한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한다. 아내로 삼으려고 여자를 사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의식주만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는 것까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마 하나님께서 부부사이의 성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실까 싶으면 고전 7장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23.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진심으로 원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을 가리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다(38)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일이다.

24.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였다. 그럼에도 사역의 원동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기도: 쉴 틈도 없이 바쁘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새벽기도를 하셨던 모양이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도 다 느끼고 아픔도 슬픔도 우리와 같이 느끼시는 그 분께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분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느냐?'고 고함을 친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드셨나봐요!

25.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과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 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르셨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다.
- 2) 저녁에는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몇 시에 일을 마쳤을까? 아마 일찍 끝마치지 못하셨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을 새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에 몰려온 것이다.
- 3)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가셨다. 도대체 언제 얼마나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 4) 낮이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전도여행을 다니셨다.

대강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은 거의 이런 모습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와 전도로 쉴 틈이 없으셨던 예수님.

26.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께서 고치시는 장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문둥병자의 믿음도 훌륭하다.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민망히 여기심: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불결하다고 피해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쫓을 던지던 때이므로.

손을 내밀어 대신 것: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몸에 대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고 한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면 그 분은 분명히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마 때가 되기까지는 큰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그마한 자랑거리 하나도 감춰 두고 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생리거늘...

27. 마가복음은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억울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로 로마인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한다. 누가 종의 족보나 탄생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결과적으로 글의 진행이 아주 빠르다.

28. 마가는 닥쳐오는 박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다른 이야기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예수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증거, 하늘의 증거, 위대한 가르침을 베푸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심지어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불리던 문둥병마저 고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말한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말 것을 권면한다.

마가복음 2장

1.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데리고 왔는가?

다수의 사람들, 혹은 마을 사람들: 형편이 아주 딱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합세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침상은 네 사람이 들기에 편했을 뿐이다. 문장의 주어는 '사람들이'이다. 네 사람은 그들 중에서 운반책임 뿐이다.

2. 이 중풍병자가 병도 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무엇, 혹은 누구 때문인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형편이 아주 딱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데리고 오는데 단지 운반하기 편리하기에 네 사람이 메고 온 것 뿐이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해야 무슨 큰 믿음이 있었겠는가?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가능하다. 따라서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권수라도 없을까 해서 우리 속에서 찾아내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같지도 않은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만일 그런 얘기같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곤란하다. 차츰차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3. 교회에는 사업자 오는 사람도 있고 연애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유로 왔건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온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다. 마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생고 어떤 변화와 유사한가?

처음에 원한 것은 병 고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다: 연애자 왔고, 장사차 교회에 왔고 그 목적만 달성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잘못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지 '왜 장사하러 교회에 오느냐?'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4. 발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찬 집의 지붕을 뜯었으니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아무리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무례해도 되나?

예의보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의 수준은 낮았을지라도 적극적이었다. 남이야 뭐라고 비난하건 이들에게는 친구에 대한 뜨거운 우정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적극성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사람은 없다. 잘 되건 못 되건 형제를 위해서 움직이자. 내가 훈수짓을 하는 것이 형제들을 위한 즐거운 일이 된다면 기꺼이 훈수가 되자.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형제를 위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5.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처했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 중에 어느 말을 더 애용할 것인가?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능력이 없어도 표가 잘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서기관들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도 하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애매하고 검증할 수 없는 대답은 능력도 실력도 없는 점쟁이가 하는 짓이다.

6. 서기관들이 가장 분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다 (7).

[13~17]

7.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단다. 그러면 언제 또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가?

1:16-20: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적이 있었다. 마가는 장소의 이동 과정을 비교적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갈릴리 해변 → 가버나움 회당 →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 다른 가까운 마을, 온 갈릴리 → 바깥 한적한 곳 → 가버나움 → 다시 바닷가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돈하며 읽다보면 뜻하지 않은 보물을 발견하기도 한다.

8. 레위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1:16, 18)과 달랐다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행한 일로 이미 소문이 널리 퍼진 뒤인지라 바닷가에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복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근처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열심히 세관업무를 보고 있었다. 레위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갔다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또 무슨 더러운 꼴을 볼까 싶어서 나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물을 잡고 있기도 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공통점은 자신들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9. 세관에서 일하다가 '나를 좇으라'는 한 마디에 일어나 좇을 수 있나? 욕을 얻어먹을 망정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단순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어쩌면 일에 충실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인격에 매료되어 있었으나 차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일에 충실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였을 것이다.

10.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 집으로 갔나?

고별 파티를 하러 간 셈이다: 세리와 죄인들(예외의 직장 동료들이거나 친구들-일반인에게는 이렇게 알려짐)에게 자신의 떠남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것은 기꺼이 예수를 좇기로 작정한 증거이기도 하다.

11. 죄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생각: 전염을 피하기 위하여 병든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당하다. 예수가 의인이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각: 고치기 위하여 병든 자와 가까이 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남을 고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되자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살자는 뜻이다. 어릴 때 '민지 않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 '교회에서만 살아라'고 배웠다. 나쁜 물이 든다는 것이다. 철이 좀 들고 생각해보니 좋은 태도가 아니더라. 내가 왜 물이 들어? 물을 들여야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음을 잊지 말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약한 자를 위하여 더 약해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다보면 자신의 적은 신앙마저 다 팔아먹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기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다지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쩌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다.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탕자가 아들로서 온갖 기쁨을 누리지만 다시는 집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번의 가솔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결코 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다. 믿는 성도의 범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시겠지?" 분명히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또 못을 박는 행위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2. 예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반가울까?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 안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 선생님 없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의사 앞의 건강한 사람, 정비사에게 절대 고장 안 나는 새 차는 그리 기분 좋은 게 아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장난 차만 찾아다니는 정비사, 환자를 보고 뛰어가는 의사 같은 분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의인을 제쳐두고 죄인에게로!

[18-22]

13.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는다면?

금식해야 할 이유에 문제가 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는 것은 금식의 의미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태이다. 의미도 모른 채 남이 하니따 따라 하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 헌금, 구제, 안식일 문제 등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말은 절대 삼가야 한다.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지 남들과 비교하면 하던 공부도 팽개칠 가능성이 많다. 형과 아우 사이를 비교하는 일이나, 자기 남편을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14.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한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무엇인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금식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맹목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규정을 지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다. 당시에 금식기간이라 해도 혼인잔치의 경우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다.

15.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점은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를 할 때가 있으므로 때를 잘 분간하라는 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의미도 모른 채 종교적인 행사만 치르지 말고!

16.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이다. 금식과 잔치만큼 다를 것이다.

17.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 즉 율법이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은혜의 시대.

18. 안식일의 문제(23-28)는 두 번째 도전적인 질문이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을까? 길을 가기 위해서 잘랐을까?

뒤의 다윗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배가 고파서 자른 것이 틀림없다.

19. 이삭을 자르는 일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인가(참고, 신 23:24-25)?

남의 밭을 걷드렸으니(X), 안식일에 일(자르고, 비비고)을 했다는 뜻으로(O) 다른 날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신 23:24-25)' 이삭을 자르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추수, 타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규정을 어겼으나 괜찮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주일에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은 괜찮다는 뜻인가? 만약 다윗이 또 가서 달라고 한다면 계속 주었을까? 떡을 주면서 조곤은 없었는가? 무슨 정황이 참고 되었을까?

다윗의 경우는 규정위반인 것이 분명하나 그로 인해 아무런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주신 셈이다. 규정에 매인 안식일보다는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자들이 밭을 자른 것도 다윗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셈이다. 본격적인 안식일 논쟁은 다음 장에서 계속된다.

21.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의 적용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 부대와 생배 조각에 어울리는 행동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규정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

22.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도' 주인이니라? '도'는 어느 구절과 병행되는가?

2:10절: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시행할 권위도 있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원인이 된다.

마가복음 3장

1.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대비시켜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엿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예수님의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차이점: 안식일에 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 질문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답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누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겠는가? 안식일의 의미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2. 같은 주제로 두 번의 충돌이 있었는데 2장 끝에 있었던 충돌과 3장 앞에 나오는 충돌을 비교해 볼 때 나중의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장의 충돌: 제자들의 잘못에 대한 해명성 발언

3장의 충돌: 예수님 자신이 고의로 규정을 어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더욱 도전적이다.

3.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편 손 마른 자를 한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짐작해 보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고치지 말라는 말이나? 실상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없는 사람 욕이야 할 수 있지만 면전에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규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4.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완악하다고 하시며 노하시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불쌍한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도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따지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불쌍한 사람을 고쳐놓고 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이다. 예수님의 자명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다는 것은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5.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느라고 나가서 평소에는 원수지간이던 헤롯당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외세를 배격하는 애국주의자들이다. 그러면 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의 이름을 참고로 해서 짐작해 보자.

헤롯당은 정치적인 사람들로 헤롯 가문을 위하여 외세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인 셈이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무리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죽이는 일에는 협력하고 있다.

6. 손 마른 자의 상태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날 고치시면 안 될까?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고치시려고 고의로 부딪히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 위험에도 그들의 그릇된 안식일 개념을 고쳐 놓으시려는 것이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창조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일의 참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7~19]

7. 바닷가로 물러 가셨다는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하여 간 것이다. 이렇게 피하다녀도 되는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면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신다.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은 잘 따지면서도 매사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두고 계신다는 것은 잘 잊어버린다.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있으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때가 아니며 그런 일로 인하여 그릇된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경계하신 때문이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막으시려는 것이다.

8.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신지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먼 지역은 어느 어느 지방일까?

시돈과 이두메: 가장 북쪽이면서 이방 지대는 시돈, 남쪽의 이방인의 땅은 에돔을 뜻하는 이두메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9.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아진 원인은 무엇인가?

가르침보다 하신 큰 일(주로 병을 고치는 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동조했을 것이다. 병 고치는 놀라운 이적이 사람을 많이 불러모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못한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 세워지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눅 16:31)고 하였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외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다.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가능해진다.

밀려드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이유가 바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한다.

10.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꾸중을 들었다. 무슨 차이인가?

귀신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어설퍼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11.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왜 산에 오르셨는가? 체력으로 제자를 선택했을까?

기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질문에 혼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경공부 방법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 눅 6:12-16 절에 답이 있다. 어떻게 찾느냐? 외워서 알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관주성경, 성구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12. 무림의 고수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유능한 아르바이트 교사가 가르칠 학생을 구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방법이나 결과는 낙제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조교에 맞는 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난 후에 선택한다: 유능한 아르바이트 교사는 사례를 많이 준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기 위한 기본적인 처세술이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도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얘기다.

13. 열두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혹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은가?

한 명도 없음: 적어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1) 시몬 베드로(게바, 바요나 마16:17): 이름의 뜻은 반석이지만 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했다면 언제? 그는 비록 과격하고, 비겁하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었다.

2-3) 야고보와 요한: 보아나게(우리의 아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좌의정, 우의정의 장본인(치맛바람의 장본인)

4) 안드레: 베드로와 형제,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따름

5) 빌립: 오병이어의 기적 때 시험받음

6) 바돌로매: 들로매의 아들(어쩌면 나다나엘이 아닐까?), 항상 빌립과 함께 언급됨

7) 마태: 세리 레위(마가는 세리라고 언급하지 않으나 마태복음에서 본인이 언급함)

8) 도마: 디두모(요 21:2) 의심(요 20:25)과 용기(요 11:16)와 고백(요 11:16, 20:28)으로 유명해짐(이성적 신앙인)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막 15:40, 마 27:56)

10) 다대오: 눅 6:16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본명일 것이다.

11)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그가 '열심당원'이었음을 뜻한다.

12) 가롯(Scariot) 유다: 배신자

4명은 어부, 세리 1명, 독립운동가 1명, 나머지 6명은 언급 없음. 제자 선택은 성공적인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작이다. 12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성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기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의 입을 들어막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고전 1:26-29).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렇게 자라났다.

14.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게 하려 하심(15): 혼자서 하기에는 일이 벅차서일까? 함께 있어야 할 인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들에게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1) 교육과 훈련과 교제를 나누었고, 2) 파송해서 전도도 하고 3) 귀신도 쫓아내게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삶이어야 한다.

[20~35]

15.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이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식사할 여가가 충분하거나 먹는 일에 너무 충실하면 안 되는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라 점을 감안해서 건강과 자신을 돌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바쁘면 안 된다(막 6:31)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어느 목사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다.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 본문이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16.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염치도 없나?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프거나 병이 들면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사람은 남의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 이런 일을 이왕 말았다면 각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17. 친속들의 기록(21)과 모친과 동생들의 기록(31)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 친속들이 설치대는 통에 모친과 동생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이끌려 왔을 것이다.

18.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믿고 잡으러 온 모양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추측을 해보자.

내부적인 요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현재의 모습보다는 요셉의 아들로만 기억하거나, 어릴 적 모습만 기억하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의적인 소문이나 시기심이 더 위력적이다.

외부적인 요인: 서기관들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탈영이나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애인과 어머니를 동원하는 것처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군에서는 이동하는 곳마다 애인 이름과 주소를 적으라고 한다. 없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19. 예수에 관한 두 가지 소문이 난 모양이다. 미쳤다는 것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이 소문의 출처는 누가 퍼뜨렸을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22)**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저 해대는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이단을 상대하는 방식도 이런 것 아닐까?

20. 이단이라고 덮어놓고 배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요일 4:1-3).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 무조건 상종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상종해도 이길 만큼의 실력을 기르는 자세로 살자. 자신을 더 정확하게 살피든지 아니면 적을 더 자세히 살피든지 해야 한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채 적을 살피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단을 상대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최소한 교리나 신조를 통하여 자신의 율타리만이라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21.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시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내가 귀신이 들렸으면 스스로 망할 짓을 왜 하겠는가? 늘 이상한(?) 대답을 하시던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답이다. 국가든 단체든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기보다는 내부의 비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더 많다.

22.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것과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무슨 차이가 있으며 누가 더 어리석고 악의적인가?

미쳤다: 내용도 모르고 방방거리는 사람이다. 미쳤다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능력은 인정하는 셈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부정함으로 상식이하의 발언이 되고 말았다. 악의적이다.

23. 서기관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말인데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말씀이 어떻게 그에 대한 반박이 되는가?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내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결박했다는 뜻이다.

24.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신을 강도로 설명했다. 설마 구세주가 어떻게 강도짓을 할 수 있는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낱강도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세주이지만.

25. 성령을 훼방하는 죄란 누가 저지르고 있으며 어떤 죄인가?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악의적이고, 고의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 이런 죄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거부하는 행

위이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취방죄이다.

26. 모친과 동생들에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끝내 못 만났을까?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함을 가르치셨을 뿐이다. 예수께서는 결코 가족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국가대표로서 시합 중에 아버지의 위독함을 듣고도 계속 시합을 마쳤다면 임종을 지키지 못한 반인륜인가? 그것을 칭송한다고 해서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우리의 가족인가? 믿는 형제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함부로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믿는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믿는 형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2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보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보자.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 것: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요 6:29).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면 천국의 촌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관계가 동시에 가능하다!

◇능탈(勸奪):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빼앗음

◇핍근(逼近): 매우 가까이 닥침

마가복음 4장

1. 배에 앉아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우리나라 해안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갈릴리의 해안선 중에는 뒤가 병풍처럼 일어서 있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2. 구약에 어떤 비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많은가 적은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비유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신 셈이다(2).

3. 갑자기 비유가 많아지기 시작한 이유를 3장과 관련지어 보자.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진 이후부터 많아졌다.

4. 11절을 참고하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자에게 더 잘 알게 하고 알 수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는 기능(대적자들, 내용을 알면 더 대적하기만 할 뿐이며, 모르는 그 자체가 동시에 심판이기도 함) 비슷한 예로, 권력자가 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할 때도 '돈 좀 대출해 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기 위함이다. 요즘 깡패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다. 들어서 믿고 따를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대적하려는 사람에게는 못 알아들게 해야 당장 대적할 수 없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준 비유에서 다윗이 알아들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끝까지 들었을까?

5. 알레고리(*Allegory*)란 비유에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를 다른 의미와 부합시키는 방식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Allegory*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기도 했다. <여행자=아담, 예루살렘=천상, 여리고=죽음의 땅, 강도=마귀, 제사장과 레위인=구약의 사역자들, 선한 사마리아인=그리스도, 기름=위로, 포도주=영적인 권면, 짐승=그리스도의 몸, 여관=교회, 데나리온 둘=사랑의 두 계명, 여관 주인=사도 바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귀환=그리스도의 재림>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지 눅 10:25-37의 전후 문맥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의도하는 부분만 옳을 뿐이다. 중심되는 주제(말하려고 하는 것)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번째 비유에 대하여, 2~20]

6. 너희는 누구이며 외인은 누구인가(11)?

너희: 제자들, 외인: 대적자들

7.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죽으려 모의하는 자(3:6)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3:21-22), 병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자(3:10), 제자들(3:14)

8.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10) ↔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문맥상으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되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뿌려졌으므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다.

9. 이 비유의 제목은 '여러 종류의 밭'인가 '씨 뿌리는 비유'인가?

밭에 관심을 두면: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씨에 관심을 두면: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결실하리라.

뿌리는 자에 관심: 비록 결실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반드시 결실을 거두리라.

좋은 씨를 골라 좋은 밭에 뿌리는 이 모든 과정은 '뿌리는 자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풍성한 자신의 수확을 확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되나? 그것은 현재 자신의 의결이지 그 당시의 예수님 의결은 아닐 것,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풀밭이든 자갈밭이든 씨 뿌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천명하신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10. 열매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20)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참고 요 6:29). 나의 어떤 행위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일뿐이다.

[두번째 비유에 대하여 4:21~25]

11.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22)는 말은 원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좀 쉽게 고치면 ‘드러내려 하는데 숨길 수 없고 나타내려 하는데 감출 수 없느니라’고 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나타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다’가 될 것이다. 핵심이 무엇인가?

등불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등불을 비추려 하시는데 이것을 막으려는 자나 보지 않으려는 자가 있어도 끝내 온 세상을 비추고야 말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인다 해도 예수님이 던지신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야 말 것이다.

12. 본문에는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사람이 없다. 다시 번역한다면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놓이려 함이나 등경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이다. 마치 등불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 비유의 주체가 예수님이면 무슨 뜻이 되는가?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말리라’는 자기 선언이 되는 셈이다. 이 비유의 주체를 우리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되겠지만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13. ‘너희의 해야리는 그 해야림으로 너희가 해야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되로 주면 되로 받고 말로 주면 말로 받는다’는 말씀이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도 그만큼 크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새겨들으라. 그러면 더 많은 보너스까지 있을 것이다.

14. 일련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 복음의 풍성함, 즉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는 구절은?

더 받으리니(24) 천국은 빈익빈 부익부이다. 맛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먹게 되는 반면에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양만 채우고 만다.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욱 더 큰 복을 누리며 산다.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 그것은 이 땅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의 원천이다.

[세번째 비유에 대하여, 4:26-29]

15. 문맥 파악을 위하여 다음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2)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씨가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맺는데 모르다니):** 눈에 자라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씨가 자라는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에 있으나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3) **땅이 스스로:** 농부의 노력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농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땅이 씨를 틔우고 자라게 하는 요소가 없다면 농부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16. 중심 되는 강조점은 무엇인가?

씨는 저절로 자라는 능력이 있다. 농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자라난다. 하늘나라는 우리들이 뿌릴 수는 있어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7. 그렇다면 농부의 수고나 할 일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지라도 농부는 농부의 일이 있다. 최선을 다 하여 좋은 밭에 뿌리고, 덮어주고 김도 매고 물도 주어야 한다: 이 비유가 농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란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면 ‘복음은 자생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고, 자라게 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아무 데나,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뿌리기만 하는 사람이 생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어울리지만 공부하지 않으면서 이 말을 애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 속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조급할 때 이런 말로 위로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비록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것은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 그러면 부모의 애씀은 소용없는 일이란 말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 병 고치는 일(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결혼하는 일... 우리는 피상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내면적이고 바탕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최선을 다 하자. 그러면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열매는 저절로 자란다고 해도 농부의 그 수고를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 씨 뿌리는 자에 의하여 씨가 뿌려졌음을 기억하자. 밭에 드러누워 있음에도 씨가 자란다고 말하지 않는다.

18.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순식간에 건설할 수 없었을까? 이 비유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세월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라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신앙은 성숙해 간다.

19. 씨, 싹, 이삭, 열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씨: 감춰져 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싹: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삭: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열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20.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면 농부는 뭐야? 농부가 섭섭하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서 찾으시오.

추수의 기쁨은 뿌리고 가꾸는 자의 것(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을지라도)

21.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자.

저절로 자라는 씨: 농부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관심이 있는 비유다. '자라는 씨'라고 한다면 자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할 오류의 위험이 있다.

[네번째 비유에 대하여, 4:30-32]

22. 겨자를 왜 나물(푸성귀)에 비유했을까?

겨자는 실제로 나물 종류이다.

23. 왜 하필 겨자씨에 비기는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기 때문: 겨자씨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채송화씨보다 작다고 한다. 언뜻보면 조금 큰 먼지 정도.

24. 천국은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런 예를 비유 중에서 지적한다면?

나물이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 것: 나물이 자라서 가지가 생기고 새들이 깃들일 그늘이 있는 나무처럼 자란다. 단순히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달라질 만큼 자란다. 그런 예는 금속에서도 볼 수 있다. 순도가 몹시 높아지면 특성이 변하는 예가 많다. 나물이 변하여 나무가 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33~35]

25. 예수님의 비유를 청중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만약 모두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둔 것일까?

[4:35~41]

26. 풍량이 정말 거셌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어부출신 제자들이 풍량을 겁냈다는 점: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목수 출신 선생님을 매우다니! Irony가 아닌가?

27.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하셨다는 증거는?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풍량이 거셌는데 그냥 잠을 잘 수 있었다: 예수님도 피곤함과 배고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였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겪으셨다.

28.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워함? 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만한 때가 되었음에도?

29. 마가는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간, 장소, 주변상황, 배에 물이 가득 참, 다른 배들,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심,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의 울부짖음, 제자들의 당황함...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은 몰랐다. '저가 뉘기에?'라는 반응이 그것이다. 위대한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30. 풍량에 대하여 예수(믿는 자의 표본)와 제자들(믿지 않는 자의 표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 함께 풍량을 당한다는 점, 성도권 아니권 간에 자연의 법칙에 따른 고통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다만 대처하는 방법이나 자세가 다를 뿐이다.

차이점: 받아들이는 자세나 태도가 다르다.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적어진다. 전 7:13-14를 참고하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연단, 선물을 주시기 위함, 징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폭풍 속의 평화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마가복음이 당시에 박해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 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1. 앞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한다면 여기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마가복음 5장

[5:1~20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1.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는가? 가령, 귀신, 귀신들린 사람, 주변의 사람들, 말없는 제자들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각 경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자.

1) **귀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2) **귀신들린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같을 수 있다.

3)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이히 여기고만 있는 점에서 믿는 우리와 다르다.

4) **말없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능력은 없이 구경만 하거나 당황해 하는 모습이 가장 우리와 닮았다.

2. 우리 아이들에게 귀신은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사탄의 종개같은 이런 귀신(영적인 존재)은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귀신은 대부분 없다.

3. 귀신이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무덤, 돼지(부정한 짐승) 깨끗하면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므로 귀신을 부르는 따위의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신18:11).

4.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을 찾아보자.

영안이 있다. 영적인 일을 안다. 무당, 각종 귀신들린 자도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단다. 그렇다고 위대하거나 존중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이적을 행하더라도 합부로 믿지 말라(요일 4:1, 살후 2:9).

5.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

아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 귀신을 괴롭히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귀신의 입장에서는 괴롭히려고 온 셈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귀신을 염두에 두고 오신 것이 아니기에 '아니라'는 것을 답으로 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분을 굳이 귀신의 시각에서 하는 말에 맞다고 답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6. 왜 돼지때에 들어가기를 구해놓고 이 돼지때를 몰살시키는가?

귀신에게는 이런 것이 당연하고 정상 아닐까?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롭게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능력은 있고 힘도 있지만 하는 짓은 이 모양이다.

7.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은 자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저들은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관계이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제자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불행이다. 일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8. 예수님은 돼지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가?

귀신이 어디로 가건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뿐이다. 내버려 두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어디로든 또 이동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돼지때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것이다.

9. 군대귀신은 무엇이라고 개명을 해야 할가?

군대귀신 → 돼지때귀신 → 물귀신

10. 귀신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슈퍼맨처럼 힘이 무척 세다. 제정신이 아닌 슈퍼맨은 대단히 위험하다.

무의미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함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이끌려 무덤 사이에 거함. 그 곳은 죽은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 거할 곳이다.

11.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왜 때려두시는가? 제자로서 불합격인가? 아니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할 일이 더 많다는 뜻인가? 고독한 전도자?

은혜를 받았다고 다 예수를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떨어져 있어도 할 일이 있다. 데가볼리라는 이 방인의 지역에서 이 놀라운 예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

셔도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전하라고 하셨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따라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너희는 신앙운동을 해라. 우리는 고시 공부를 할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시 공부도 곧 신앙운동이 되어야 한다.

12. 돼지 치던 사람들이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기에 두려워할까?

돼지 치던 사람들은 책임 문제에, 몰려온 사람들은 호기심 아니었을까? 재산에만 관심을 쏟으면 뜻밖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 귀신들렸던 사람이 열병한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경탄하지 않는가? 돼지때가 아까운가? 동료 한 사람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한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돼지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기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먹지도 않는 돼지를 이렇게 많이 치는 것은 이방인의 지역이란 뜻이다.

13.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슬픔을 가졌을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귀신들이 먼저 아는 것

14. 예수님은 귀신들의 말도 존중해 주었다. 무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귀신들도 귀신들의 때(멸망 받을 때)가 있다. 귀신의 영역을 존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시는 것이다.

15. 돈 얼마, 자존심 한 쪼가리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는가? 풀랑 점수 얼마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예가 너무 많은 현실이다. 재산 전부를 잃어버리더라도 예수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반대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예수를 쫓아낸) 돼지때의 주인이 되지 말자.

[5:21~24, 35~43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16. 마가복음은 박해받는 로마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전장에서 복음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예수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서는 귀신(영적인 무리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소개된 셈이다. 다음에는 무슨 능력을 가진 분으로 나오실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17. 다음과 같은 상황변화에 따른 야이로의 심경변화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자.

- 1)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짐, 어떤 어려움과 비용을 써서라도 고치고야 말겠다. 그런데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 2)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 돌팔이 아닐까? 나는 명색이 회당장인데 저 분은 어디서 어떻게 배웠으며 진짜로 능력이 있을까? 알아는 봐야지! 사람들 말로는 확실하다는데...
- 3) **예수를 찾아 왔을 때:**
- 4) **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하심:** 좀 빨리 가자!!!!
- 5) **웬 여인이 끼어들었을 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제발 다른데 신경고고 빨리 좀 갑시다.
- 6) **죽었다는 기별이 왔을 때:** 바람 빠진 풍선 꼴이 아니었을까!
- 7) **몇 사람만 데리고 이동할 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겠지만 불안, 초조...
- 8) **집안 사람들의 비웃음:**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
- 9) **딸이 살아났을 때:**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는가!

18. 거라사인들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다면?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거라사인들은 재산 손실에 관심이 더 많고 유대인들은 병 고치는 일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인 곳과 육적인 곳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가? 테레사 수녀가 더 좋은가? 박찬호가 더 좋은가?

19. 야이로가 언제 가장 답답했을까?

딸은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고 사람들은 많고, 웬 여자가 끼어들어 지체하는 순간이 가장 답답하지 않았을까?

20. 야이로의 이 답답함이 해결되려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든지,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씀이라도 하시면 되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백부장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좋았을 걸: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복이다. 일이 터진 다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평소에 준비되어야 한다.

21.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1) 훌륭하다면 어떤 점이 돋보이는가?

회당장이란 신분으로, 소문은 났지만 무명의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일: 목사가 집사에게 간구하는 형국인데(23절) 자식이 죽어갈 정도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은 점: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 웬 여자가 끼어들어 지체함, 드디어 아이가 죽었다는 기별, 손님과 집안 사람들의 비꼼

2) 별 것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답답하면 누구라도 그런 것 아닌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하면 좀 약하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자신의 딸만을 위하여 가게 하시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닐까? 만약 가르치고 계시다면 중지하고 가야 하는데...

22. 아무리 비밀로 하라 해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소문이 퍼져도 천천히 퍼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소문이 될 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지시사항은?

몇 명의 제자만 데리고, 모든 사람을 내어 보내고, 많이 경계하심

23. 거라사에서 군대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가서 소문을 내라고 했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려 내고는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가?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가서 전해야 했고, 유대인들은 더욱 거세게 왕으로 세우려 할 것이니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다.

24.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으로 '달리다, 굼'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 말이 평소에는 어떤 경우에 흔히 쓰였을까?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Wake up!) 딸이 실제로 죽었을까? 잤을까? 야이로의 집 손님들이 보기에는 죽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자는 것이다. 곧 깨어날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에게는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다. 성도의 죽음은 얼마 후에 깨어날 잠이다. 다시 죽지 않을 천국에는 밤이 없다(계 21:25).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5. 딸이 진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사람들의 비웃음(40): 비웃다니? 예수의 소문을 못 들었던 말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비웃었다.

딸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의 말(35)에도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직접 예수님께 말한 것도 아니다(36).

26. 꾸물대던 예수님의 동작이 어느 순간에 빨라졌는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을 떼어놓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어쩌면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수 1:2).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때이다(출 14:13-14)

[5:25~34 혈루증을 고침]

2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괴롭다. 이 여인의 아픔을 조목조목 짚어보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12년이란 세월, 혈루증,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 재산상의 손실, 더 심하여짐: 추측컨대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고,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가장 큰 아픔: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닐까?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28.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적 어려움: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이는 것, 뒤로 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 유명한 연예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종교적 어려움: 부정한 자가 남에게 접촉하는 것(레 15)은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29. 미루어 짐작컨대 이 여인은 본래 어떤 성품의 여인이었을까? 미친 여자처럼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 달려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사려 깊고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고 원래는 돈도 많았던 것 같다. 교양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의 여자였을 것 같은데 그 놈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30.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가 있다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 우리도 소문을 많이 내야 하는데 어떤 소문을 낼까? 소문 들고 왔는데 와보니 별 게 없다는 데 현실의 문제가 있다.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 별 수 있는 삶을 살자.

31.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훌륭한가? 미신인가?

그의 믿음이 비록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가냘픈 그의 믿음과 안타까움에 기꺼이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죽도시장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전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꼭 저래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우리와 어찌 보면 소용도 없어 보이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는가?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부럽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격려를 받음)

32. 그렇다면 34절의 네 믿음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미신적인 믿음이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음으로 믿음의 주체도 여전히 예수님이시다. '시험을 잘 쳤으니 자전거 한 대 사줄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사줄 마음이 있었다. 아이의 말은 '시험 잘 쳤다고 자전거를 사주셨다'다. 옳은가?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그래 잘 했다. 1등만 해봐라 무슨 소원을 못 들어주겠니?' 이런 식이다.

33. 예수님의 옷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은 것 때문이다. 병자가 지나다가 무심코 마주쳐도 나았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보다는 옷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성의, 성배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고 소유하거나 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고, 안수 기도, 목사님의 기도, 특별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 예수님께 직접 향하는 내 기도가 중요하다.

옷에 향하는 관심도 이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중요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것도 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도록 아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부족한 생각일지라도 순수한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한나처럼 무능한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34.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데(레 15) 예수님은 왜 다른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정이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 닿으면 오히려 깨끗해진다. 능력의 차이이다.

35.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질문의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인가?

제자들: '아니,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인: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경험과 교제가 바로 신앙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애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행한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상하다! 연애편지를 공개하고 싶은 사람하고 똑같다.

36.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왜 물으셨을까? 몰라서 묻은 것이 아니다.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칭찬, 격려,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만약에 묻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누리는 기쁨은 작았을 것이며, 두려움, 혹은 흠쳐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나아가 영혼을 치료하는 인격적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병만 고치고 사라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 만약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다면 그 여인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옷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병 고치는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37. 왜 예수님을 만나는(체험하는) 사람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워하는가?

능력을 체험하기 전: 관심이 오직 병을 고치는 데에만 있었고 예수가 위대하다 해도 관념 속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능력을 체험한 이후: 병이 낫고 나니 예수가 누구인가에 생각이 미침,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극도의 이기심으로 무장된 자신을 보는 순간에(=실체를 알고 나니) 두려워짐, 이사야, 베드로, 바울, 욥...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구나!

38. 이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여인의 신앙은?

- 1) 겸손한 신앙 - 무리 가운데 조용하게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실천하는,
- 2) 절대적인 신앙 - 예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은,
- 3) 고백하는 신앙 -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서슴없이 자기를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초점이 여인에게로 향했다는 점에서 다소 감점이다.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설교여야 한다.

마가복음 6장

-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 지혜와 능력(새로 알게 된 것)** 가르치는 일과 능력은 인정받았다.
 - 예수의 친족(기존의 아는 것)** 이것 때문에 새롭게 받은 지혜와 능력을 무시했다.
-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주 다양하다. 가장 명예로운 이름 중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1)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2) 정상적인 경우라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옳을까? 3) 왜 그렇게 불렀을까?
 - 마리아의 아들, 2) 요셉의 아들, 3) 애비없는 자식, 혹자처럼 사생아라고 경멸하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가장 아니꼽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천한 목수 주제에 제자를 거느리고 나탄한 것이 아닐까? 혹은 랍비로 불리는 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 로마(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다보니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본문의 어느 내용이 문제가 되는가?

예수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라고 하는 말과 누이들이 있다는 말
- ~ 얻었노뇨? ~이 어찌이뇨?(2)라는 표현은 감탄의 느낌을 준다. 반면에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3)의 느낌은 어떠한가?

경멸적이다:
- 예수의 새로운 모습을 고향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
 - 먼저 입력된 것이 나중에 입력되는 것을 거부하는 간섭작용을 선입견이라든가? 어릴 때 교회에서 가장 농땡이 치던 놈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처럼, 인성은 알고 있으나 신성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가짜 김일성 장군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어? 아는 사람이잖아?' 하고 찾아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단다.
 - 시기심:** 자신들과 달리 유명해지는 동료들 비난하는 수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부자로 산다면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없는 일이다.
 -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좋은 사람 두고 시원찮은 먼 데 사람 좋아한다(결혼). 시이저를 환호하는 국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몸종이라는 서양 속담도 있다.
 - 민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저 먹는 것이나 현찰에만 눈이 벌게지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위하고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 로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두려워하여 삼손을 거부하듯, 독립지사를 숨겨주는 것을 꺼려하듯이?
 - 유명세를 탄다고 모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지 않는다. 박찬호 선수가 한창 유명세를 탈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비난하였는가? 열렬히 환영하다가 이내 배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가 보다. 차원이 높은 일일수록, 특히 신앙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정상이다. 우리도 신앙문제에 관한한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기를 바랄 수 없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문제이다. 잘 놀고, 노래 잘해서 비난받을 일은 별로 없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비난을 신앙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배척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사 53장)
- 고향 사람들과 친척에게 배척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하게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왜 그럴까?

자신이 신앙문제로 가족에게 배척을 받고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면(6) 모르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니(5)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동역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지 않고 하신 일은 천지창조 밖에 없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속에서 없는 믿음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믿음이라 일컬으며 능력을 행하셨다. 노아의 예를 든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였지만(창 6:9)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원어상 표현으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능력부족이 아니라는 증거는 소수의 병인은 고치신 일이다(5) 대부분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사하셨다.
-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신성이 드러난 때와 인성이 드러난 때는 어떤 때인가?

인성이 드러나는 경우: 자신의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 즉 가족과 고향에서 배척받으심, 꾀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 고난 받은 일...

신성이 드러나는 경우: 타인의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 즉 풍랑 속의 제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심, 죽은 자를 살리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님으로 그의 신성은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만 소용이 있었다. 왜 나는 슈퍼맨이 되면 안 되는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6:7~13]

10.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들을 보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습 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것이다. 원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막 3:14).

11. 둘씩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기 위함(전 4:9-12). 증인은 둘 혹은 세 사람이어야 한다(신 17:6).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가령, 위험하기 그지없는 선교지).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에는 합부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도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다(9:18).

13. 왜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가져도 좋은 것은?

가지지 말라는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과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말라는 의미이다.

가져도 좋은 것: 오직 신발과 지팡이만 허용했다. 많이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것이다.

14. 파송받은 12제자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자는 이래야 하는가?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시적이고, 훈련 중이다.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아니다. 신부와 수녀는 그렇게 살기로 서약을 하고 시작했으니 그렇더라도, 목사님들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떠난 분들이 아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편찮으나 남(부인이나 자녀들까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15.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말씀은 한 곳에 거처를 정하거든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다. 거처를 구하기 위하여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능력 있는 제자들을 대접하겠다고 쟁탈전이라도 벌여지면, 이집 저집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은 알력이나 시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만약 대접이 시원찮거나, 도저히 그 집에 계속 있을 수 없는 형편(집안 처지나, 음식이나)일지라도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만 보여라.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6. 발의 먼지를 떠는 행위는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떨어버릴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이다. 이방인의 지역을 다닌 사람이 모든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듯,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

17. 제자들이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였다.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베드로도 그랬다. 그런데 요즈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듣기 어렵고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많단다. 그래서 어떤 분은 듣기 싫든 말든 여전히 회개를 설교의 주제로 삼는다고 자랑했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에 선 사람이나 출발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제자들이나 요한,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다.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 성화를 이루어 가는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잘 달려가고 있는 선수를 붙들어서 어다가 다시 출발선상에 세우는 짓은 삼가해야 한다.

18.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신학교에서도 가장 필요한 과목이 이것 아닐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말했던 이 역할의 상당부분은 오늘날 의사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오늘날의 전도자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별한 경우라면 있을 수 있지만 병이 들면 무조건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꼭 신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되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 제자들의 활동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육적인 일이다. 적어도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일이다.

[6:14~29]

20.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행한 일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예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헤롯: 작은 세례 요한, 헤롯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무언가 일이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버릇이 사람에게에는 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엘리야(말 4:5, 마 11:14, 마 9:13), 혹은 선지자 (헤롯을 위로하려는 주장일 수도 있을 것)

제자들: 신이 났음(30)

21. 헤롯의 행위나 생각이 유대인답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작은 사람의 원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은 아주 특이함 - 어쩌면 이방인이었기에 가진 미신적인 사고

22.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보고 어떤 점이 자신과 닮았는지 생각해보자.

1)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음

2)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좀 비정상적인 사람

3) 양심이나 소신에 따르지 못하고 우유부단. 이혼, 결혼은 소신대로 하면서, 요한의 문제는 고민을 많이함, 엉뚱한 소신파(원서 쓸 때)

4) 이 여인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가둠, 죽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판단착오

5) 요한의 지적을 달게 받음

6) 체면을 존중함: 연회석상에서 잘난 체 하지(허풍떨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결론) 위대한 아버지 덕에 왕(이름만)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멍청이,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부름(눅 13:32)

23. 헤로디아의 요사스러움에 대하여 설명해보자.

1) **시숙과 결혼:** 그 문제를 지적하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됨. 이름이 비슷한 것은 원래는 삼촌과 질녀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첫 아내의 친정(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과 싸워 패하고 황제에 의해 유배되고, 통치권이 아그립바에게 넘어감

2) **딸을 이용하여 요한을 죽일 계획을 꾸림:** 공주로 하여금 천한 무용수, 위안부나 춤 추게 함

24.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특히 서글픈 점이 있다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사장은 굶어 죽어야 하고 시대가 악해지면 의인에게도 비참함이 따른다. 악한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외로운 목숨이 조그만 계집아이의 천한 춤값으로 사라지다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인식한(1:2-8) 마가가 그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와 같다.

25.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문제에 무엇 때문에 나서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요한의 삶은 실패인가? 종교적인 가르침만 베풀면 되는 것 아닌가? 회개하라고 할 때 이런 것을 가리키는가?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요한과 함께 용감하게 투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요한의 죽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의 역할에서 그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마져 잘 닦아주었다. 요한의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인류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귀하지만! 요한의 죽음에도 예수님은 당장의 현실보다 먼 훗날까지 계속될 복음 전파에 정열을 쏟았다.

26. 우리의 삶도 이런 요한의 삶이어야 하는가?

요한은 헤롯의 죄를 면전에 대고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으셨다. 때가 되기까지는 피해 다니시기도 했다. 말은 역할의 차이다. 무조건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러다가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가 되면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때가 아닌데 용기만 내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도 죄 많은 세상이 되어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온 사방에 적만 팔아두고 개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27.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내의 잘못된 말을 따르다가 신세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헤롯이라면 구약에도 흡사한 인물이 있다. 구약의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부는?

아합과 이세벨(왕상 21장)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이다. 그것을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한다.

[6:30~44]

28. 열 두 제자의 파송(7-13)과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30)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1) **제자들의 사역이 그만큼 효과적이었다:** 제자들의 활동 때문에 헤롯마져 죄책감에 시달릴 정도로 제자들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다.

2)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시:** 억울하게 요한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예시이기도 하다.

29. 사도들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행한 것: 병을 고친 것과 귀신을 쫓아낸 것,

가르친 것: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나라였으니 제자들이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 인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상이 '인간'이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시다.

30.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성인 사람은 어떤 부류인가?

배를 타고 쉬만한 곳으로 이동하면 먼저 예측하고 와서 자리잡은 사람들(32).

31. 바쁘고 피곤한데도 염치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잘 대할 수 있는 비법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일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 연주를 위해서 무대에 서면 수많은 관중들을 '호박'으로 여기란다. 그래야 떨리는 것이 덜하단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토끼나 짐승' 정도로 보아야 쉽게 칼을 들 수 있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수이다. 내게 나누어 주어야 할 좋은 것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바울의 자부심을 보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고후 6:10)

쉬기를 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요, 심을 포기하고 돕는 것도 잘 하는 일이다. 어쨌든 최선을 다 한다면 잘 하는 것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32.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판국에 쉬어도 되는가?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쉬는 것을 죄악시하지 말라. 반면에 휴식을 너무 즐기는 것도 곤란하다. 진정한 휴식은 진정한 일 다음에 오는 것이다.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무리들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무리를 따돌리려고 했다.

33.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가르칠 스승이 없었다. 곳곳에 회당도 있고 랍비도 있으며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적인 기갈을 채워주지는 못하였다. 결국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34. 불쌍한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가르치는 것이고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것이었다: 원래 공부 떨하는 애들이 먹는 것을 더 밝히는 법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다(37). 제자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쏟고 있으니 예수님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35.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최소한 식사 인원이 8,000명에 ₩3,000짜리 도시락이라도 ₩24,000,0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자들이 말한 200데나리온을 어떤 영어번역은 '8개월치 임금'이라고 했다(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당이였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합리적? 비논리적인가? 초합리적, 초자연적이라고 해야 한다.

36.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줄 알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감동이 된다: 바이올린이 고운 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꺾어본 사람과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동은 전혀 다르다. 매사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심히 산 사람은 매사에 감동을 잘 받는다.

37.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숨기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놓자 사람들이 부끄러워 각자의 것을 내놓아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 1) 구약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광야의 만나, 사렘다 과부.
- 2)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한 경향
- 3)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을 수는 없다.
- 4)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었다. 설령,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저녁까지 싸들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38.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작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 알의 밀알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옳은가?

주책이 전도된 말이다. 만약에 아무도 내놓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기적이 가능한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오병이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것이나 썩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밀알 속의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나의 작은 희생 때문에 이런 기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으면 어린 아이다. 밥 안 먹으려는 놈에게 사정사정 해가며 억지로 숟가락으로 떠 먹였더니 다 먹고 한다는 얘기가 밥 먹어준 값 내놓으란다. '내가 한 게 뭐 있느냐?'니까 '입을 내가 벌렸잖아' 하더라.

39. 약 8,000명 정도였다고 본다면 몇 때를 이루었는가? 몇 명이 어떻게 나누어 주었을까?

100 떼(그룹):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었다면 얼마나 뛰어다녀야 했을까? 그룹별로 담당자를 뽑아서... 모르겠다!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40. 이 떡의 특징을 찾아보자. 무엇이 이 떡의 특징을 담았는가?

청중들의 입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떡이다.

예수님의 긍휼에서 나온 떡이다.

풍족한 떡이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

기적적으로 분배된 떡, 다함이 없는 떡이다.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떡, 하늘의 떡이다. 만약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기 위함이었다면 계속 먹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끊임없이 늘어나서 온 인류를 먹이는 것이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믿었다는 우리의 행위가 오병이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그야말로 큰 것이다.

[6:45-56]

※ 일경: 6시~9시, 이경: 9시~12시, 삼경: 12~3시, 사경: 3시~6시 (로마식이다)

41. 무리들을 급히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장 참고)? 가뜩이나 놀라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가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냥 순순히 돌아갔을까?

왕을 삼으려함 때문(요 6:14, 15) 왕을 삼으려는 것은 죽기 위하여 온 예수님께서는 위기이다. 놀라운 기대감과 무리들의 환호에 흥분하면 자신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겼구나 하는 순간에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42. 제자들을 보고 무리들을 돌려보내라고 하고 자신은 뒤에서 잠시 쉬는 것이 보통일텐데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을 왜 그리 급하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우쭐하여 품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보내버림, 환호하는 군중과 격리시킴.

43. 예수님은 왜 이런 때에 기도하셨을까?

1)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가 필요함: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기도였다. 뭔가 완수했다는 느낌일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노력이 중요하다(coramdeo).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할 일과 자신을 돌아보셨다. 제자들의 전도여행의 결과로, 해롯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압박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2) 제자들에 대한 훈련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우선이다.

3) 얼마쯤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이 고생한 시간과 거의 같을 것이다. 아래 질문을 참고하면 철야기도를 하신 셈이다.

44.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얼마동안 보시고 계셨을까?

저녁 9시에 출발했으면 적어도 6시간 이상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45.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고생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 일부러 고통 먹이신 게 아닌가?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

1) 알고 계시면서 내버려두심: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연단의 의미가 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나면 그만큼 용감해진다.

2)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함

4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1) 가까이 오셔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그 분의 성품이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거나(계 3:20), 짐짓 지나가신다(마 9:27, 15:22, 20:30, 막 10:47, 눅 18:39).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법이라고 박대하시기도 한다(막 7:27). 이럴 때 붙잡아야 한다. 그를 불러 세우고 매어달린 사람들은 황재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이다.

47. 떡을 떤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다니(52)?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예수가 어떤 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하심을 가끔 잊어버리지 않는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든 루터였지만 낙심하고 있을 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누가 죽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상복 입은 이유를 말했을 때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면?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외로움과 슬픔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한다. 기억이나 이적을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48. 제자들의 형편과 우리 인생살이를 비교해보자.

굴곡이 있다: 전도여행과 떡을 나누던 때와 풍랑에 밀릴 때의 제자들의 처지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작은 변화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그 굴곡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점이다. 작은 일 하나 하나마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시31:15).

49.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옴, 예수의 옷 가예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함

50. 왜 환자를 장터에 두는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르는 곳을 선점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서 전도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51.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생각은 미신적임에도 다 성함을 얻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신 비슷한 현상이 있는가?

두통이 심한 사람이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두통이 사라졌다는 간증(?) 아닌 간증도 있다: 신앙적으로 될 성숙한 사람의 어설픈 신앙행위를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주자. 나와 다른 방법이나 열심을 가진 자를 인정하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풀 때 미리 십자가를 긋는 행위, 집들이나, 개업에 꼭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어야만 된다는 생각...

마가복음 7장

[7:1-23]

1.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덧붙인 설명을 세 군데만 찾아봅시다.

2절의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이란 '씻지 않은 손'을 가리킨다는 설명,

34절: 유대인들에게 손, 그릇, 주발, 몸을 씻는 관습이 있다는 설명,

11절의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의 의미를 설명한 것: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부모님께 아무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이 착복한 셈이다.

2. 다음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들을 찾아보자.

입술(6) ↔ 마음(6)

장로들(사람의) 유전(3, 5, 7, 8, 13) ↔ 하나님의 계명(8, 9, 13)

모세의 말(10) ↔ 너희의 말(11)

부모를 공경하라(10) ↔ 고르반(11)

3.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적은 노력으로 여기 까지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흠잡을 일을 찾기 위해서 고의로 왔음을 말한다. 3:22에서 일차 실패하고 아마 2차로 파송되어 왔을 것이다.

4. 1)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을까? 2) 볼 것이 많았을텐데 왜 하필이면 몇 제자가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보이는가?

1) 와 많다(군중들), 대단한 능력(기적적인 치유), 열둘이나 되는 제자들?

2) 사람의 눈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흠을 잡으려고 온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만 보인다.

5.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있는데 '왜 씻지 않느냐'는 것이 잘못된가?

언뜻 보기에 위생상, 전통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형식상, 의식상의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장로의 유전, 즉 형식만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셨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일부는 옳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근거로 더 큰 잘못을 지적하셨다.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6. 우리가 꼭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화장실' 다녀온 때라고 할텐데 유대인들은 왜 하필이면 '시장'일까?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면 그 중에는 부정한 사람이 끼여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레 15장 참고). 그러나 까 위생상의 문제(신체상으로 더러운 것에 접촉하는 것)가 아니라, 정결례의 문제(결례법상으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란 뜻이다. 그것이 어떻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가?

부모에게 드리면 유익이 된다는 것은 부모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자가 갖고 있을 때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나 하나님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요리조리 다 빠지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8. 1) 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가? 2) 제사음식이나, 술, 담배도 그런가?

3) 침이나 가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더러운 것인가?

1)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가 육체가 아닌 영에 있다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육과 관련된 것이므로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

2)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금한 것일 뿐이다. 박태선파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몸에 술이 묻으면 부활 때 그 부분은 썩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적 부정함 때문도 아니고, 술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라 단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때문이다. 술 한 잔했다고 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다.

3) 육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나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생상, 기본상으로는 좋지 못하다.

9. 제자들의 질문(17)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1)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2) 너무도 당연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너희도'라

는 말씀을 보면 청중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1) 그게 어떻게 비유냐? 15-16절은 비유가 아니다.

2)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당시에는 그만큼 파격적(폭탄선언)이었기 때문이다.

10.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19). 이것은 글자 그대로 폭탄선언이다. 유대의 전통을 깰그리 부수는 선언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을 가능케 하는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고넬로 사건(행10:1-16)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다면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생각했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교훈이 결과적으로 부정하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상종하게 만들어버렸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그 외에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갈2:11-14), 롬 14장, 고전 8, 10장, 골 2:16 등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다.

11.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사람의 계명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왜 이런 규칙이 주어진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좀 피곤하겠지만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미 혹은 의도를 생각하자. 십계명을 중요시하면서 서문을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12.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 중에 1) 하나님과 관련된 조항이 왜 없을까? 2) 가장 나쁜 것은? 3) 가장 흔한 것은? 4) 전부 몇 가지인가?

1) 문제 제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전제 하에서 부정하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다수결이나 토론으로)

3) 탐욕, 음란

4) 12가지

13. 장로의 유전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혹독하게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을 두 가지만 지적해보자.

형식에 치우친 것(외식),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고르반):

[7:24~30]

14. 배경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1) 이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2) Korean-American은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미국인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찾으려면? 3)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

1) 헬라인(언어학 상), 2) 수로(시리아 지역의) 보니게(페니키아인), 3) 두로(지금 레바논의 페니키아)

15. 예수님께서 두로에 간 이유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선교, 치유 등의 공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 했으므로(24)

16.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경을 넘어 잠적하려 했을까?

앞의 폭탄선언과 관련해서 격해지는 박해를 잠시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목숨까지 걸고 지키던 규례와 규정들을 깰그리 무시해 버렸으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몹시 격분해 있었을 것이다. 잠시 냉각기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휴식(6장에서도 휴식에 방해받음): 잠시 쉼도 없이 교회를 섬긴다고 뛰어 다니는 젊은 교역자에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단다. '휴식도 목회야!'

17. 예수님의 이 모진 말씀(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이 본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

평소 인품을 봐서(다른 이방인의 경우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즉시 귀신을 쫓아낸 점(소원을 깨끗하게 들어줌)

18. 이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27절)은 옳은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옳다: 말이야 맞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뚱뚱한 사람을 보고 뚱뚱하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처럼. 다만 이 여인을 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으며, 아픈 마음을 즉시 감쌀 수 있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19.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떤가? 위대한 신앙의 표현인가? 자식으로 인한 비굴함인가? 마태복음15장에는 더욱 팔시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신앙의 표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

이에는 금기사항이 없다.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 체면도 예의도 벗어 던질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분이 무엇이랴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서로 신뢰가 있다면 훨씬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여름날 학급실장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잔뜩 눌렀다. '마치 동태가 여름날 축 늘어져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왈왈거리다가 또 자고...' 그러는데 마침 종이 쳤다. 실장이 일어나더니 두 번 '왈왈'(차렷!) '왈왈'(경례!)했고 친구들은 그 구령에 맞춰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교실은 웃음으로 난리가 났고 선생님은 웃으며 나가셨다. 요즈음에 그랬다가는 인격모독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20. 이 여인이 남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간구한 점,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영리하다. 침착하다(개도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다) ↔ 미친 사람

겸손하다(웁소이다마는)

간절하다(부스러기라도)

의심하지 않았다(돌아가라 할 때)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 이는 이 여인뿐이다.

간절히 사모하다가 결국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랴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모양이다(좌절? 신뢰? 믿음이 없는 모양이다? 의심하였다?) 이 여인은 자식의 불행이 결국은 위대한 신앙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21. 견딜 수 없는 수모와 실망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인정(능력, 존재)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

22.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셨는가? 아니면 연단을 주셨는가? 아니면 무엇?

시험하심(1점)

연단하심(2점)

이 여인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심(3점):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의 기사가 널리 전해지면서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은가? 아무 일없이 바로 고쳐주셨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보라. 아무에 게나 이렇게 하시진 않았다.

[7:31~37]

두로의 북쪽 40Km에 시돈이 있고, 다시 동남쪽 내륙으로 내려와서 갈릴리를 우회하여 동쪽에 데가볼리(Deca-Police: 열 개의 성읍이란 뜻)가 있다.

23.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별로 성과없는 여행인 것 같다. 전도보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휴식이나 제자 교육을 위한 여행이었던 모양이다.

24. 이 지역은(데가볼리 쪽의 갈릴리 호수, 동쪽) 지난 번 군대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쫓겨났던 곳이다(5장) 그 동안 많이 변한 것 같다. 비록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도록 변화된 동기는 무엇일까?

귀신들렸던 자의 전도(5:17-20)?

25. 왜 군중들이 보는 곳에서 치료하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감추려 하신 적이 더러 있는가?

군중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눈요깃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다. 광야의 시험 때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랬다.

군중들이 너무 흥분하기를 원하지 않으심, 36절 참고: 야이로의 딸, 변화산, 자신이 메시아임도 감추려 하셨다. 나중에 드러내셔야 할 상황에는 스스로 드러내셨다.

26.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 순서대로 정돈을 해보자.

1)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2) 침을 뱉어: 침을 사용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다: 가려움이나 간단한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침이 가장 약효가 있다.

3) 혀에 손을 대고

4) 하늘을 우러러 탄식: 탄식하듯 간구하셨다. 창조의 원형이 깨뜨려짐에 대한 안타까움 아닐까?

5) '에바다' 하심: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이고 그 지방의 토속어는 아람어이다. '에바다'는 아람어이다.

27.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그렇게 간단히 안 되나?

치료하는 방법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믿음의 차이이다: 그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온전한 딸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나,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고쳐졌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억지로 왔다.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하여 이런 행위를 했음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다. 완수하여 병이 나은 사람 중에는 병원에서 ‘오진’이었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식에게 돈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옳으나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서 심정이 상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우리의 부모들은 남자라고, 딸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다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내게 필요한 것과 나의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빠하고 똑같은 옷을 사 주지 않는다고 시샘할 필요가 없다.

28. 다음 네 사람의 치료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① 야이로의 딸 ② 혈루증 여인 ③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④ 데가볼리의 농아

1)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신 경우: 2, 3

2) 기적적 치유를 감추려 하신 경우: 1, 4

3) 아무 행위도 없이 고치신 경우: 2, 3

4) 치유의 표시를 많이 낸 경우: 1, 4

1) 야이로의 딸: 천천히 가심,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심,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2) 혈루증 여인: 확인만 하심

3)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모진 대답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자 바로 치유됨

4) 데가볼리의 농아: 조용한 곳에서, 요란스런 치유 모습으로

29.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말이 연상되는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 11:5-6) 간접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다.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30.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이 잘 지켜졌을까?

대체로 이 명령은 준수되지 않았다. 흥분하여 날뛰는 것을 진정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을 통하여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 같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기에 그랬을까? 그릇된(정치적인) 메시아관이 퍼져서 진짜 사역(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을 경계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환호란 순식간에 조롱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1: 일단 죽으려고 오셨다 -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은 죽는데 지장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2: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 터만 닦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일을 완성시키려 하셨다. 열심히 가르치고 병을 고치긴 하셨으나 자신이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씨 뿌리는 일만 하셨다.

마가복음 8장

[1~10]

1.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6:33-43)과 비교해서 별개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자(10가지 정도).

- 1) 또(1)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음을 말한다.
 - 2) 땅에 앉게 하심(6) ↔ 푸른 잔디(6:39) 장소 뿐만 아니라 시기도 다르다는 뜻이다.
 - 3) 떡 일곱 개 생선 두어 마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
 - 4) 음식의 원소유자: 아이(↔제자들)
 - 5) 남은 조각: 7광주리(↔12광주리),
 - 6) 인원: 약 4,000명(↔5,000)
 - 7) 장소: 데가볼리 ↔ 벳새다
 - 8)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심(↔제자만 배로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가심)
 - 9) 제자들의 대답: 전에는 돈타령이더니 이번에는 장소타령(같은 이야기 - 만약 마을이 가까웠으면 돈타령이었을 것)
 - 10)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냄 ↔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하였음
 - 11) 사흘을 같이 있었음 ↔ 예정에 없이 달려온 사람들이어서 당일치기
 - 12) 예수님께서 별 개의 사건으로 언급하심(19-20)
- 광주리의 크기도 원어상으로 다르다. 6장은 '코피노스'(작은 광주리)와 8장은 '스튀리스'(큰 광주리).

2.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떡 얻어먹은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은혜로웠을까?

알 수는 없지만 요 6:26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는 말씀을 보면 엉뚱한 것에 더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이다. 수련회 다녀와서 기억에 남는 것이 설교보다는 웃기는 이야기라면?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충실한 삶보다는 일탈행위가 더 많다면? '공부 많이 했니?'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3.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며칠이나 굶었을까? 아직도 남은 것이 개나 있다면 그렇게 많이 굶지는 않았겠다. 배고픈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 무척 매료되었음은 틀림없다: 잘 먹고, 잘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없는가? 성경 공부라는 것이 노래방이나 고스톱보다 못한가? 토요일 방과 후에 성경공부를 했던 중3 아이들이 기억난다. 도시락도 없던 토요일이었으니 '배고프지 않니?' 했더니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어디서 이런 성경을 배우겠어요?' 내게는 적지 않은 감동을 안겨줬던 아이들이다.

4.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로만 일관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 언제쯤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신앙적 사고로 전환될까?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기독교 신앙은 지식적 사고에서 체험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했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일 뿐이다. 자신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구경꾼일 뿐이다.

5.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인가?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 사항은 하늘나라였지만 무리의 굶주림도 무시하지 않았다: 영의 양식만 나누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충분하게 나누어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다 아신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에 지쳐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먹고 놀 때도 열심히 먹고 놀아야 한다.

6.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떡은 바로 예수 자신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떡은 우리 구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 작은 희생이 따랐다: 작은 것을 요구하셔서 큰 것으로 갚음.
- 청중들의 입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떡이다(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 예수님의 공헌에서 나온 떡이다.
- 풍족한 떡이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

기적으로 분배된 떡, 다함이 없는 떡이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이방인에게: 이 지역은 이방인이 많은 지역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7:31). 아마 모인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11-21]

7.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싸웠을 가능성이 보이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자.

힐난, 시험, 탄식, 결연한 의지(=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아마 황급히 이동하느라고 먹을 양식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8.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가?

지난번의 선언(7:1-23) 이후 사라져 버린 예수님을 단단히 버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9. 바리새인들의 힐난성 요구(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에 왜 응하지 않으시는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1)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소용없다:** 이렇게 믿음이 상실된 병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고 이런 증세가 다방면으로 퍼지면 정신병자가 된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다.

2) 예수님께서 평소에 베푸신 이적과 병을 고치심,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표적이 아니란 말인가? 아들이 자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적등본, 출생 때의 사진,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제시한다면 웃기는 집안이다. 차라리 “까불고 있어!”, “그래 이놈아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답이 더 낫겠다.

3)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 중에는 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기 위하여(기드온, 하박국, 말라기), ②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데 시험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아하스), ③ 악의로 시험한 사람(르비딤 물가의 이스라엘, 출 17:2, 민 14:22) 등이 있다. 학기초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애교용일 경우와 적대적일 때를 구분해야 한다. 선생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의 도전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지 시험을 통과하여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민망한 말인가?

10. 바리새인들의 힐난성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속 깊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먼저 믿어야 하는 자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자가 배신할 때 쓰는 말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11.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다. 들은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는 것만큼 듣고, 실력만큼 본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롯의 누룩이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무슨 뜻으로 생각했는가?

떡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해 버렸다. 영적인 일보다는 오로지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철없고 답답한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주어진 표적들조차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

12. 예수님의 책망은 깨달으라는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먹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내가 지금 양식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지금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그런데도 양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다니! 제자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듣는 제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고...(마 16:12)

13. 누룩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견해는 1)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전파 2) 죄악의 영향력이다. 적은 양으로 전체를 점진적으로 부풀게 영향력을 비유로 사용한 셈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욕을 먼저 배우듯이 형식은 쉽게 배우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과 행동을 통한 형식을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고 빠를까?

14.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면 해롯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렇다면 해롯의 누룩이란 무슨 뜻일까?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세속주의에 대한 유혹, 세속에 물들 위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만 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지만 해롯의 누룩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즐거움에 매료될 가능성을 말한다. 정치라는 것도 맛을 들이면 마약보다 더 무섭단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힘에 맛을 들이면 명분이 아무리 옳아도 절차를 무시했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일이 흔히 있다.

15.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신 것과 가장 대조적인 것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예수님께서서는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살리셨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작은 것(누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22~26]

16. 치료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환자의 치료와 비슷한가?
7장의 귀먹고 어눌한 자: 벳새다에서 소경을 고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다. 그리 중요한 이야기 같지도 않은데 마가가 여기에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17. 왜 한 방에 고치시지 않는가?

그의 상태에 달렸다: 자신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특별한 절차없이 순식간에 나아버렸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온 사람들은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고쳐주셨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8. 다른 어떤 치료 기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면?

치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 한 마디로 즉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보이구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구나'라는 이 소경의 대답을 보면 절반 정도만 고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고쳐진 소경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바로 뒤이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는다. 위대한 고백을 했다가 곧 이어 엄청난 꾸중을 듣는 이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소경의 상태와 같다. 이 소경이 만물을 밝게 보게 되듯이 그런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짓을 다반사로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27~38]

19.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는 대답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 답이 틀린 탓도 있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 아닌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바로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건 당신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20.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세례 요한:** 헤롯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적을 행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엘리야:** 이적적인 능력 때문이다.
- 3) **선지자 중의 하나:** 가르침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답안의 공통점은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믿기 전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세계 삼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았다.

※ 그리스도 = 基督, 크리스마스, 메시아

21.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제 정신인가 아니면 얼떨결에 해본 소리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결단이 따르는 고백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고백은 엄청난 축복과 칭찬이 따른 것이 된다. 별 생각없이 뱉은 한 마디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많이 있다. 그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고(?) 줌 치자. 잘 해보려는 생각이 중요하지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에 굉장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에 아무 반응이 없는 이유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 겸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베드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이 받은 칭찬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22. 베드로의 이 고백과 간함이 제정신이라면 베드로가 실수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에 대한 엉뚱한 기대감: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탓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메시아이다.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베드로가)이 가졌던 메시아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압제의 해방자였다.

23.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성격은?

뻔뻔하다. 생각없이 나서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가 책망도 듣기를 반복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합부로 나섰다가 책망을 듣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제자로 세움을 받았다.

24.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이제야 털어놓았다(31).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하셨는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일(27-30): 무슨 역할이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드릴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분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분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25.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 (31) 역사상 죽으러 온 사람이 또 있는가? 없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 땅의 일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다.

26.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다 듣지 않았거나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듣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죽는 것만 생각했지 살아난다는 말은 듣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7. 아무리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다니 심한 것 아닌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적어도 이 문제만은 단호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사단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앞의 그 고백 한 마디를 근거로 교황 무오설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다.

28.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무슨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인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세속적인 출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29.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는 말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부가적인 것일 뿐이다. 만약에 전자가 내세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저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표현이라면 정반대의 의미이다.

30.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기를 따르려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말은 좀 모순이 아닌가?

버리면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 종류의 목숨이 있다. (일시적인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얻으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

3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란 말인가?

초대 교회 상황에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말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현대인의 상황에서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보일 때 자신의 지, 정,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32.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황은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이다.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현대의 우리가 중요한 기득권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스스로, 기꺼이 당하심을 따르는 것: 진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 가령, 부부 사이에 서로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안다면 나머지 일은 다 사소하게 보인다.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33. 35절을 요약하면 '잃으면 구원하리라'이다. 두 개의 동사의 앞에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넣어보자.

() 잃으면 () 구원하리라.

지금 잃으면 인자가 다시 올 때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9장

[1~13]

1. 당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즉 변화산 사건, 예수의 죽음, 부활의 영광, 승천, 성령강림,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말씀이 세상을 점령해나가는 것(로마를 기독교화)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마가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1, 2년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기록했을 리가 없다. 마가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변화산 위의 변형은 어느 정도의 변형인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 무서울 정도, 제 정신이 아닐 정도(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 비슷한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을 뵈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것을 들 수 있다(출 34:29-35).

3. 이렇게 변화한 모습과 변하기 전의 모습은 어떤 관계일까?

변화된 모습이 범죄하기 이전, 즉 창조된 원래의 모습일 것이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은 빛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나체처럼 살았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에도 직급이 높아지면 소위 품위유지비라는 수당이 나온다.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품위를 유지해야 통솔이 가능하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려면 무슨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 모든 짐승이 저절로 굴복할 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변화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만한 것도 없이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품위 유지비가 바로 빛이 아닐까?

중국 사람들의 조상은 창세기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다음 한자들을 살펴보자. 불 火 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火: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모습이며, 光: 첫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모습이다. 두 글자 다 ‘사람인 변’에 속한 글자이다. 榮: 두 사람이 나무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영화로울 영’자이다.

4.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 대화의 주제는?

자기들의 경험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가령, 모세는 ‘지도자의 길은 정말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혼자 외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 이야기’ 그러나 끝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광’도 누린 점 등. 누가는 이 때 대화의 주제가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고 전한다(눅 9:31). 율법(모세)과 예언(엘리야)의 대주제는 예수의 죽음이다.

5.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 것: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 그를 평생토록 확신 속에 살도록 인도한다.

6.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수없이 반복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잘 안 들어서? 도무지 말이 말 같아야 알아 들지! 예수님께서 저지르신(?)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는 뜻이다.

7. 앞 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은 베드로의 특기이지만 이 때는 두려웠다고 했다. 왜 두려웠을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경 때문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제 정신이 아닌 말을 했다는데 베드로의 말이 제정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초막은 예수님의 수난 예고와 상반된다. 편히 계시려면 아예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다. 메시아의 본질과 주제(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산 밑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만 되는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어울린다는 점을 든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8. 지금 산 위에는 몇 명이 계시는가?

7명: 세 제자,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님. 현장에 없는 듯이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9. 바로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칭찬감일까? 책망감일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않으셨는데 만약 했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사탄아’ 소리 한번 더 들을래?

10. 왜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는가? 편애 아닌가? 아니면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 세 제자의 생애의 특징을 생각

해 보자.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책임자며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수고를 다함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됨

요한: 거꾸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돌봄, 예수의 모친을 돌보노라고 최후까지 살아서 고생을 함, 결국 요한계시록을 남겨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함

결론: 정말 어렵고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준비하지 않은 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남과 다르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위대한 경험을 하게도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 *No cross, No crown!* 이라던가!

11. 산을 내려오신 모습과 비교하면 산 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영광스런 빛 가운데 계시는 분(3)** 빛을 잃은 세상, 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셨다(요). 산 밑은 마땅히 있어야 할 빛이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셨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2)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거하시던 분(4)** 엘리야, 모세와 함께 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산 밑을 내려오면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함께 흥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로만 가득 찬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병든 자를 찾아오신 의원이셨습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7)**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하나님 대신에 귀신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귀신이 제 세상인 양 설치고 다니는 그 곳에 귀신을 제압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궐에 살던 왕자님이 냄새나고 불편한 시골로 내려온 것과 비교도 안될 만큼 지저분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12.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9명의 제자까지도? 무리들? 대적자들을 가리키는가? 왜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가?

적어도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해서 사역에 방해만 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무식하게 마구 덤비는 것은 다르다. 열심히 하되 현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한 영혼이 내게 달렸으니 잠잘 겨를이 어디 있으며 밥 먹을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 며칠 팔팔 뚫다가 천국가면 되는 것이냐?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13.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제자들은 뭐야? 왜 그럴까?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개념은 아주 익숙한 것이다. 다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개념(정치적인 개념)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메시아의 길(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하기 만한 경우가 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다른 탓이다. 정신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가 다른 것이다.

14.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 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과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려고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남의 말을 빌려 자신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면야 괜찮지만.

15. 제자들이 한 질문의 내용은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만약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것이다(11). 예수님의 답변(12)의 요지는 무엇인가?

엘리야에 대한 생각부터 틀렸다. 그래서 임의로 대했다(13):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식이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면 굳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대답하셨다.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도, 엘리야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틀렸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복음서는 공히 요한을 오리라한 엘리야인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를 외쳤던 요한이 바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와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그 요한을 한낱 어린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사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도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러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그렇게 길을 예비했으니 예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럴만한 값어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로서는 감사할 뿐이다.

16. 서기관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이 구절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케 했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그냥 임하셔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마치 요압이 성을 거의 다 점령하고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기별하여 왕이 점령한 것으로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는다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17. 엘리야가 미리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서기관들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은 왜 모르나?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조명없는 무대이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이요, 형제와 가족,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첩경이다.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말은 외국어를 통해서 보면 더 잘 보인다. 세상은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 의미가 있고 잘 보인다.

18. 당시의 일반적인 종말론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것, 메시아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14~29]

19. 큰 무리가 돌렸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데 무슨 변론이었을까? 제자들이 이겼을까?

서기관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을 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28)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20. 귀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요약하면?

병어리 되게 함(17, 귀먹게 함-25), 거꾸러지게,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게 하며, 파리하게(18), 경련을 일으키고, 굴며(구르며), 거품을 흘림(20), 불과 물에 자주 던짐(22)

(요약)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는 것마저 파괴시키는 것: 귀신을 부르는 일이나 가까이 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21.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가?

예전에는 고친 적이 있다(6:13): 그런데 왜 지금은 못 고치는가? 성령 충만은 사라지기도 한다.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것이 능력을 지키는 방법이다.

22.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말한다면?

믿음(19, 23) 기도(29): 어떻게 답이 두 가지인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아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치료하는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믿음으로)와 성령 충만(기도로)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교제를 말한다.

23. 예수님은 누구에게 야단을 치시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제자들? 군중들? 아마 전체를 상대로 하신 말씀일 것이다.

24. 숨이 막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등등 질문을 계속하면 미친다. "접수부터 하라" 하고는 피검사하고 X-ray찍고... 합부로 약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단다. (반복되는 일이라면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하나 받아서 핸드백에 놓아서 다니면 좋다) 이런 의사를 닮으셨나, 아이가 위급한 모양인데 예수님은 왜 빨리 고치시지 않고 이야기가 그렇게 길까?

아비의 신앙과 제자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아이를 고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 의사의 질문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도 어쨌거나 대답을 해야 하고 치료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물며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치료는 아비가 보기에는 더 답답할지 모른다. 이런 답답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5.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있다. 계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할만하시거든'(마 26:39) 다른 점이 뭐야?

26.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한번 해볼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이고(23) 기도하라는 것이다(29): 무엇을 할 것이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해병대가 하는 일이다.

27.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나 없나?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다고 해야 한다. 냉정히 살펴보면 없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심이다. 예수께 나와서 믿음으로 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도 믿음이냐?'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적지 않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던 장면도 도저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다(출 3:4 장).

28.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 사람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보자.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으되 방법도 능력도 없다.

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 놀라운 감격을 가졌으면서도 능력이 없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 찾아온 사람을 돕지 못해 찢절됐다. 관중은 많고 되지는 않고

예수께서 아이를 고치실 때 옆에 서 있던 제자들: 예수는 따르되 능력은 없다. 그래서 조용할 때 이유를 물었다.

달려 모인 사람들: 겨우 한 마디 했다. '죽었다'

[30~40]

29.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영광스러움과 비참한 현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야 옳다. 묵상과 실제적인 활동,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단과의 전투를 치뤄야 한다. 산 위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30. 왜 예수님은 소문없이 다니시며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1)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밀스런(조용한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과 단독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가족도, 회사 일도, 교회 일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근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다).

2) 충격을 줄이려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고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3)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자신도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정리할 여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31. 선생님에게 묻기도 무서워하다니(32)?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나?

질문만 하면 하도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끔찍한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2.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 사건을 두 개의 내용으로 구분해보자.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알아들은 것은 무엇이며 알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가? 만약 둘 다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십자가 사건은 '죽음'과 '부활'이다. 제자들은 부활보다 죽음에 관한 것만 알아들었다. 부활에 관한 말씀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의 삶도 두 면으로 볼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 돌 곳도 없이 가난했고, 한편으로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였다. 제자들은 어느 쪽에 시선을 두었을까? 우리의 삶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낸다.

33. 지독하게 손발이 안 맞는 스승과 제자다. 얼마나 손발이 안 맞는지 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스승은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으나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툼: 운명 직전의 아버지 앞에서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핏길에 죽어가던 사람이 되레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근거로 서로 크다고 우겼을까? 나이? 부름 받은 순서? 변화산에서의 차별? 자세하개는 모르겠지만 모이기만 하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잠잠한 이유는 그 래도 염치는 있어서?

34.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큰 자인가?

못사람의 끝, 못사람을 섬기는 자,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35. 하필이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는가? 귀엽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닮았다는 말인가?

여기서는 어린 아이: 어린 아이의 천진무구함이나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못 사람의 끝’(35)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높여 부르자는 뜻에서 만든 때부터다. 고대에는 아이의 생사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헬라인들의 생각은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 유대인들에게는 ‘방자하고 무분별하여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이며 전쟁이나 노역에 쓸모없음’, 한국인들에게는 ‘어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존재’여서 ‘아~들이?’, ‘아이들은 가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런 아이들, 혹은 아이들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이다.

36.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가 되려면 끝에 서라’는 것 같은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까?

첫째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끝에 서라는 말이 아니라 낮은 자와 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다.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성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곳에 적용하면 안 된다.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서는 섬김의 원리가 아니라 적을 죽여야 하는 원리가 우선이며 부분적으로 섬김의 원리가 적용될 곳도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는? 섬겨야 할 때도 있고 협력해야 할 때도 있지만 쟁취해야 할 때도 있다. 섬겨야 할 부분과 경쟁해야 할 부분을 잘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드러낸다면 얼마나 이기적인가?

37.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귀여워서 안아주는 것도 해당되는 걸까?

원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귀여워서 안아주는 것은 내 뜻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8~50]

38.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리에 들지도 않는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한다면?

능력은 없고 자격증만 가진 자가 자격증은 없고 능력있는 자를 팔시하는 현상, 내 교회 성도만 소중하고 남의 교회 성도들은 형제로 취급하지 않는 현상

39.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과 그것을 금한 제자들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느냐 아니냐(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기득권)를 염려하는 셈이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빌 1:18)

40. 물 한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전혀 가치 없는 것의 예로 물 한 그릇을 들었다. 그런데 물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 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가(41)?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대접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대접했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41. ‘이 소자 중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왜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보잘 것 없는 사람: 어린 아이가 작고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이다. 이 본문이 아이의 값어치를 논하는 본문이 아니다. 아이를 소중하게 다룬 본문은 따로 있다(막 10:13-16, 눅 18:16)

나를 믿는 소자이기 때문: 인간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는가? 만물의 靈長이라고?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조각나고 말았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소중하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롬 14:15, 십자가당하셨다(롬 14:15, 고전 8:11)).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큰 것이며,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것은 큰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42. 누구 목에 연자맷돌(나귀나 소가 돌리는 맷돌)을 달려고 하는가?

실족케 하는 사람: 아이를 실족케 하느니 그 아이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죽이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유아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할라!

43. ‘~하느니 차라리 ~하라’가 몇 번인가?

4번: 세 번이라고 해야겠지만(손이, 발이, 눈이), 42절을 정돈한다면 '소자를 실쪼게 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려라'고 할 수 있다.

44.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스스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천국에는 불구자가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다. 내가 아는 한 아무도 없다: 목숨을, 손을, 발을, 눈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왜? 그대로 하다가는 남아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더 선하게 사용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실쪼게 하는 것은 입인데? 온몸으로 실쪼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눈이 단독으로 범죄하기보다는 머리가 시킨 경우라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라는 뜻이다.

45. 지옥이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고통이 끝이 없음(48): 일반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끝날에는 부활한다(행 24:14). 영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독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46. 소금을 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정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불의 역할이 여기서는 고통이다. 소금도 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원의 의미가 강해 보인다. 결국은 영벌에 대한 것 아닐까? 참고로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는데 관련이 있을까?

47.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48.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여기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9장의 결론일 것이라고 보면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겸손의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49. 38~50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비교해보자.

1)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일을 행한 자: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는 일을 말리지 마라' 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만으로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작은 일을 행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2)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악한 제자들을 실쪼게 하는 자: '실쪼게 하느니 차라리 죽으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50.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 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 때문에 대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1~12]

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합정을 파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로 안식일 문제와, 손 씻는 정결례에 관한 것으로 시험했는데 여기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합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 지방(유대 지경)과 관련지어 보자.

이 지역은 헤롯의 관할이다. 헤롯이 본 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 세례 요한이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답변 내용을 짐작하고 물었을 것이다.

2. 모세는 왜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와 일치하려면 다음 구절의 어디에 강조점을 두면 될까? 바리새인들은 '내어보낼'에 강조를 두었다. 이혼 증서는 어디에 소용되는 것이었을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신 24:1-2)

써서 주고: 이혼증서의 용도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결혼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 부정한 여자라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로 증서를 써 주라는 것이지 버리라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악용한 것이다.

3.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내어 보내는 것이 본래의 의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런 법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5): 여성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보인 셈이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들이키시거나 양보하시는 수가 있다. 특별히 만든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셨다.

4. 바리새인들은 사고의 근거가 모세의 율법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법, 창조 시의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요약한 것은 정말 멋지다. 이 순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경우가 적지 않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이익을 행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행기듯이.

5.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것이다. 대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말인가? 부모가 소중한가 아내가 소중한가?

이 말씀이 부모에 대한 봉양이나 섬김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부부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부모를 잘 섬기며 공경해야 하지만 그 전에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자기 희생과 사랑과 인내로! 결혼 전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엡 5:22-33)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이다.

6. 제자들은 왜 집에서 또 묻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13~16]

7.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선생님을 좀 쉬게 해야지, 어른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동기는 선했을지라도 무식한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8.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은 게 왜 잘못인가? 요즈음은 그런 현상이 없는가?

어린 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며칠 전에 가르쳐 준 것을 잊어먹은 죄(9:36-42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느니 연자뱃들을...)

전도 시상 때에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한 것은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전도집회에서 '학생들은 나중에 오너라'면서 출입을 막는 것이나, 구역예배에 아이들을 빼는 따위...

9. 다음 표현과 대조적이면서 우리나라 떠돌이 약장수들이 많이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14)

애들은 가라!: 약장수는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는 남녀

노소를 가릴 수 없다.

10. 15절의 '어린 아이와 같이'는 목적어인가, 주어인가?

주어: 만약 목적어로 해석하면 어린 아이들이 당시에 떠받들어진 존재가 된다. 현재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전적인 신뢰를 본받으라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입학시험이 있다면 무슨 과목일까? 믿음이다. 이 과목에 높은 점수는 어린 아이들이 받는다. 똥아빠진 어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어린애가 무엇을 알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어린 아이에게 구원은 없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것을 뒤엎었다.

11.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다. 즉,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복을 내려주기를 빌어준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표현은 옳은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비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분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으므로 가능하다. 말하자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17~22]

12.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특히 앞장 서야 할 목사님들이 재산을 가지거나 저금을 해도 되나?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옳다: 이 청년에게 주신 답이 일반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재물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은 신 8:18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구절을 위시하여 많이 있다. 재물의 복도 분명히 복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재물을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성경이 재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물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13. 여러분은 이 사람의 어떤 점에 호감이 가는가?

부자라는 점: 이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면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잘 사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하고.

부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더구나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시시한(?)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계명을 잘 지킨 점: 당당하게 계명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14.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인지 책망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말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선하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틀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부자의 생각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수준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사용한 선생님(*didaskalos*)이란 말은 일반적인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런 선생님에게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15. 이 사람의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질문(행 16:30)이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질문(행 2:37)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디에?

내가... 해야: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답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명(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16.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인가? 옳은 대답인가?

계명(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폐한다고 비난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다. 잘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자에게 비꼬는 투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으로 되지 않음을 깨우치시려는 것이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답변은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었던 것과 비교해보자.

17.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계명인가? 아니면 다른 계명인가?

십계명이 아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십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십계명

을 지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더 중요한 계명을 빠뜨릴 리가 없다. 이 부자가 자신 있는 부분만 지적하면서 자부심을 더 키우는 것이다. 풍선이 쉽게 터지도록 탱탱하게 바람을 넣듯이 넣어놓고 침으로 가볍게 꼭 찢어버리는 것이다.

18.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의 자부심을 무참하게 깨뜨려버린 것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한 마디에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재물이 자신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려는 마음은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물론 아니었다. 그러므로 재산이 그의 우상이었으며 곧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그에게는 치명적인 선고였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허식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19.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린 아이와 어떻게 다른가?

계명을 잘 지켰고 재산도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 사람이 자라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배우고 알아도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것이 과연 사람의 발달에 기여했는가? 어린 아이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20.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고 한 가지만 부족했다. 그러면 100점은 아니라도 80점이나 90점은 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면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더 섬겼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재물이기에 성경은 무수히 경고를 하고 있다.

[23~31]

21.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거듭 놀라는(24, 26) 이유는 왜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자도 못 들어가면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려운 것 아닌가?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산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라고 믿는다.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당시에나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종교개혁 때에 다시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그 이전, 중세 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제자들도 놀랄 수밖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22.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구원이 그런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27a)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가능한 것(27b-c)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자나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즉, 인간의 노력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다. 어린 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다.

23. 튼튼한 말로써 책임을 받는데 이끌이 난 사람이 베드로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28)’는 베드로의 이 말은 책망거리가 안 될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당연히 책망받을 말이다: 부자나 제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냐는 것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저는 이만큼 했는데요’ 하는 말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의 답변: 100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그 뒤에 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31)’ 그만큼 많은 것을 버렸으니 그만큼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들뜨지 말고 나중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24. 난외주에 보면 29절 끝의 ‘[아비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다. 버린 것에 대하여 백배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다수결로 결정해 보자)

아마 남자들은 아내를 제일 먼저 버리지 않을까? (아래 질문을 참고해야 한다)

25. 이 복이 문자 그대로 백배의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베드로의 생애에서 찾는다면 무엇인가? (본문에는 없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백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을 받은 셈이다. 베드로가 버린 것은 물질이었고 그가 받은 것은 영적인 복이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영적인 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만약 어부인 베드로가 배를 한 척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100척이나 배를 거느린 대선주가 되어야 한다. 그가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 '제대로 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과 비교해 보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6. 버려도 잘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결국사유에 해당한다. 무엇을 위해서 버려야 효력이 있는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29):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적이 불순한 경우는 적지 않다.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어도 진짜 그리스도인답아서 욕을 먹는지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욕을 먹는지 잘 분간해야 한다.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27. 버려도 백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비: 버리는 대상에는 있지만 보상의 대상에는 언급이 없다. 아비를 백배로 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백배라는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충성한 상급'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8. 베드로는 신이 난 것 같다. 아마 얻을 것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먼저 왔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는 실족할 우려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대한 감사만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지, 나 자신의 한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이 보여서는 안 된다.

29. 예수님의 말씀은 100배의 보상을 받으려면 재산과 모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인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29)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고의로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32~45]

30.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이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진이 어떤 분위기인가?

예수님이 앞장 서고(결연한 모습?)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 순례자들이 예견되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런가(32-34)?

31. 이전에도 두 번이나 수난을 예고했는데(8:31, 9:31)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걸까?

수난의 시기(유월절)와 장소(예루살렘)가 구체화 되었으니 더 실감이 나는 모양이다: 다음에 여리고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면 예루살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며 유월절도 얼마 남지 않았다.

32. 예수님께서 당하실 수난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는 것' 등이다(33-34).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수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 인간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찾아보자. 2) 또, 수난이 수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인간 편에서 본다면 우리의 처지가 워낙 불쌍하기 때문이다. 고맙고 하지만 요구하거나 희망을 가져볼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다.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굳이 있다면 아버지의 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감사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하나님에게 만약 친구가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라고 하겠는가!

2)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에 홀리신 피와 그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33. 지금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을 앞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제자들에게 한 마디 충고를 해준다면?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함께 했으므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데'라고 버르고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묘하게도 자기가 아는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들리기도 한다. 지금 예수님의 수난 얘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로 분히 여겼다. 야,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냐? 하더라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결국 나도 같은 놈이다.

34.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였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대답하셨다. 주님은 영광은커녕 수난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몰랐던 1) 주의 우편과 좌편은 누구의 자리이며 2) 예수의 잔과 세례는 무엇인가?

1) **강도질:** 이런 자리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임금이 될 줄로만 알았다. 이들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이다. 죄 없이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처럼 죽었음을 보여주는 배경인 셈이다.

2) **인류를 위한 수난:** 알았더라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말은 '두 강도의 자리라도 괜찮으냐?'는 말인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해야지. 뜻도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자의로 그 길을 갔다. 한 사람은 일찍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고회를 돌아보았다.

35.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닮았다. 이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특징은 무엇인가?

택도 없는 소리를 뜻도 모르고 함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 요구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적어도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의 좌우편을 요구했지만 어쩌랴 예수님의 좌우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인 길, 결국 이 두 제자는 그 길을 충실하게 따랐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원하심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그들의 복이다.

36. 죄를 범하면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인류가 죄를 범했으니 누가 죽어도 죽어야 한다.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라도 누군가 죽어야만 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해낼 능력이 없으므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라고 했다.

대속물(45)

37.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본문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 하는가? 각 방식의 장, 단점도 생각해보자.

1) **집권자나 대인물처럼 권세를 부리는 재미로 산다:** 장점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더 차원 높은 재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한, 가장 재미있는 것이다. 단점은 권세를 잃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한창 펄펄 뛰는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금방 늙어버린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던 자도 권좌에서 물러나면 볼품없이 시들어 버린다.

2)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산다:**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섬기는 삶이다. 힘은 들지만 이게 더 차원 높은 재미가 있다. 진정한 평안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섬기는 삶이어야 가능하다. 스트레는 전혀 없는 삶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근거는 예수님의 희생과 수난이다.

38. 인류의 모든 고난은 사탄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낮아지는 과정이 필수이겠는데 낮아지는 과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4652]

39.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나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이란 뜻이다: 가령,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는 경우처럼 말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니 여리고는 지나가는 길목이다.

40. 바디매오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1) **나사렛 예수(인간)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예시야로 인정)이라고 부른 점:**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나? 이게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으로 오시는 이',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다(마 21:15, 행 13:22-23). 소경 거지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2) **주위에서 뭐라 하건 소리를 질러던 적극성:**

3) **부름에 적극적인 응답:** 내어버린 길옷은 옷이며, 침구(소경에게는 전채산일 수도)이다. 직장(길 가)까지 버리고 뛰어 왔다. 거지에게 길목이 얼마나 중요한 직장이라고!

41. 소경 바디매오는 이미 체념하며 살지 않았을까? 무엇을 더 바라며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그저 그날 하루 먹고 살만하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바-디매오'는 자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디매오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타는 소망이 있었다. 이 뜨거운 열망이 그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결과는?

보게 되어 예수를 좇으니라: 가진 소망이나 열정이 엄청난 복으로 화해버렸다.

42. 예수님께서 소경거지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몰라서 물은 것은 결코 아니다. 알면서 왜 물을까?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입으로 말해 보라 = 인격적인 교제를 위함이다: 아무 말씀도 없이 멀리서 말없이 고쳐 주셨다면 고침을 받아서 기뻐기는 하겠지만 감사의 말도 한 마디 못하고 그저 던져주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은 기분 아닐까? 바디매오를 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데(마 6:8)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이든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답답한 게 그리 많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막 1:35)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다.

43. 제자들과 바디매오를 비교하면 누가 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가?

바디매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못나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결코 바디매오보다 못하지 않다. 결국 제자들은 남아도 바디매오는 떠난다. 열심 있는 초신자와 미적지근한 구신자(?)를 비교해보면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도 어려울 때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구신자가 너무 기죽지는 말아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1. 왜 하필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시는가?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가장 비슷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평화의 왕(속9:9)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다: 새끼가 휘청거리지는 않았을까? 사람을 태울 줄이나 알까? 아마 다 큰 어른이 아이를 세발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2.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개선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권위나 위엄, 힘대신 겸손과 온유, 온화함으로 오셨다: 우리는 나귀타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섬김과 자신을 주는 것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강하다.

3. 예수님 자신이 은연 중에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귀 새끼가 있음과 주인이 허락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신 점, 자신을 가리켜 주(主)라고 한 점(다른 곳에는 전혀 없음)

4.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에는 비밀로 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드러내시는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셨다. 때가 아니면 자신이 메시아임도 숨기셨다. 때가 아니면 물러가서 숨기기도 하셨다. 매사에 무조건 용감한 것만이 지혜가 아니다.

5. 예수님께서 예지(豫知)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능력을 왜 어려운 때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 가는 길도 알고 계셨을 텐데...

십자가의 길은 알고 가신 길이다: 능력이 있다고 아무 때나 마구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셨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에는 보여주지 않았다.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으며 어떤 때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안일함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사용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력과 통제력이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런 판단력과 통제력의 부재에서 나온다. 대형 유조선의 기름 유출사고이나, 잠수함, 혹은 원자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6. 예루살렘을 발각 뒤집어 놓을 정도의 환호였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몹시 외로웠을 것이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환호하는 이 무리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발적인 준비와 예우에도 실제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말 타고 권세를 휘두르는 정치적인 왕이었다. 자신은 십자가 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7. 겔롯과 나뭇가지를 따는 것은 왕과 메시아로 대우하는 것이다. 며칠 뒤의 일이지만 이렇게 열렬했던 환호가 왜 순식간에 변해버렸을까?

우선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흥분을 일으키는 순간적인 감정이 곧 신앙인 것은 아니다: 뜨거움이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 일이다. 연예인들이 열렬한 팬들의 환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환호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사람의 감정을 너무 믿지는 말아야 한다. 감정은 일을 추진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지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냉철한 이성이다. 자동차의 셀모터(구동모터)와 엔진과 같은 관계일 것이다. 연예시절의 그 뜨거움도 3년은 간단다.

8. 성전청결 사건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기사의 가운데 들어있다. 의도적으로 가운데 두었을까? 일정에 따른 기록일까?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대로 기록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일과 성전청결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9.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있고 없음도 모른단 말인가? 더구나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고 보아야 한다: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전혀 없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왔을 때에도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시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10. 무화과나무에게 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이치에 닿지 않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목숨을 내놓으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억울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목숨을?

귀한 일에 쓰임 받음을 기뻐했을 것이다: 만물의 창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되었고 식물도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식물이 사람의 교육을 위하여 마를 수 있다. 피조물이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거나 더 소중한

하게 여겨지는 것도 잘못이며 반대로 자연을 학대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화과나무가 제자들의 교육에 요긴하게 쓰임 받음을 기뻐했을 것이다. ‘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고백과 비교해 보라. 앞에서 나귀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해서 쓴 것이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쓰신 것이다. 굳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11.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마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제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13). 다음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해 보자.

1) 제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열매는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나무에게 약간의 잘못이라도 찾아내려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다.

2) 제철도 아니므로 열매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이다. 나무의 잘, 잘못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고의적이라면 무슨 의도인가? 앞만 무성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 곧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저주인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보다 더 큰일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12.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본래의 사명과 동떨어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하나님 없는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무서운 경고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있을까? 어떤 분이 ‘목사의 부정을 덮거나 옹호하는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라면 당연한 일이다.

13. 성전 청결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상대한 자들은 1) 매매하는 자들, 2) 돈 바꾸는 자들, 3) 비둘기 파는 자, 4)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자들 (전대, 지팡이, 신 등을 지니고 지름길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무래기들이다. 실제로는 누구와 상대로 싸우고 있는가?

대제사장: 이들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리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쫓아내신 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도전이다. 죽음을 부르는 행위이다.

14.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 중 어떤 모습이었을까? 암전한 선생, 독립투사, 인자한 아버지, 엄한 선생님, 나약한 청년, 가쪽을 돌보지 않은 운동권 청년?

모든 모습을 다 지니고 계셨다.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15.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아직도 그 산(아마 감람산)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일까?

그 말을 듣고 산을 옮기려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관용어이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16. 기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병으로 죽거나 가난한 자 왜 생기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믿지 않아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별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느라고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다 해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부자간에는 말이 된다. 그것을 아주 사리에 맞게 말한다고 어린 아들에게 ‘네게 유익하고, 위험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 소원을 말해 보아라. 다 들어줄게’ 이러면 오히려 더 어색하다. 어린 아이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기도에 관한한 초보자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다.

17. 사이비 교주들이 좋아할 구절은 무엇일까?

23절: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 무능력의 방패막이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 것이다.

18.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좋아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오래 참으면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된다. 그래서 화를 참지 말고 터뜨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감사가 전제된 용서라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

19.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성전청결 사건 외에는 별 다른 일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매일 성전에 출퇴근하시는데(11, 12, 19, 20, 27)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리는 없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28)? 참고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일은 14장에 가야 나온다.

성전청결은 단회적이었겠지만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하는 일이었다.

뒷장에 이어지는 많은 교훈들이 이 때 성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친 내용의 일부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웬 촌놈이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 ‘걸어다니실 때’라는 말은 가르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이동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

20.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아왔다.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표현이 있을까? 적절한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다. 대표로 찾아왔을 테니까 요즘말로 하면 ‘전권위원’이나 ‘대책위’라고 할까? 자신들의 안방을 연일 휘젓고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대표를 파견한 것이다.

21.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이다(32).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인데?

하나님이어야 한다: 마땅히 백성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것은 별개의 질문이 아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나 교인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다.

22. 이들이 묻는 것은 성전청결과 가르침에 대한 자격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도 없는 예수가 떠들고 다니는 것도 보기 싫은데 사람은 구름떼같이 모이고... 제법 예의를 갖추어 모이고... 제법 예의를 갖춘 것 같기도 하지만 백성이 무서운 탓이다. 무슨 대답을 예상하고 물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답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면 참람하다고 고소할 작정이다.

23.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의 권위와 이들의 권위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

예수의 권위는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의 권위는 당시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도적 권위는 갖추었지만 능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 허준과 유도치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 제대로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참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권위가 진실에 근거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위와 권위주의자는 분간해야 한다. 목사가 성경공부 하자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집사가 성경공부 하자면 많은 성도가 찾아온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사의 입장과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24. 그들이 궁지에 몰린 이유가 무엇인가?

진실을 애써 부인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수는 없었다. 실력없는 목회자가 뛰어난 평신도에게 함부로 일을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마찬가지다. 그럴수록 교권이나 제도적인 권위에 더 의존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따르지는 않았다. 진리나 비진리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수호가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25.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게 체포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 며칠 더 남았다. 그러면 아무리 교묘한 질문이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다. 이것도 능력이다.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는 지혜로운 분이셨다. 상대방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셨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적들의 공격을 지혜롭게 비껴 나갔다. 성도들이 순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지혜로 싸울 때도 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때는 지혜로 싸워야 한다.

26.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하늘로서 온 것임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필이면 이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을까?

그가 예비한 그 길을 따라 예수도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렸다. 세례 요한이 닦아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걸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자.

마가복음 12장

[1~12]

1.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12) 것은 알겠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11:27):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다. 한 때에는 숨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셨지만 때가 되매 죽어야 할 장소에 와서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본 비유는 자신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2. 이렇게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다는 것은 당시의 형편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자신의 지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로마 황제나 다른 유력한 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속자를 죽이는 농부들의 행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 소유가 될 수 있을까(7)?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었다. 즉, 주인이 타국에서 죽었거나 기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되레 귀양을 간다거나..., 더구나 타국인이거나 부재지주에 반항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따랐을 수도 있다. 실제로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갔다가 왕의 자리도 빼앗긴 채 귀국도 하지 못한 예가 당시에 있었다.

3.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세를 내지 않으려는 것 외에 어떤 점이 더 악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참고 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율법에 대해서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이런 비난을 받아도 싸다 싸!

점점 더 악해짐: 처음에는 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종을 가져 보냈다. 욕심이 더 커지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였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유는 물질에, 돈에 눈이 멀어버린 탓이다.

4. 당시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실재가 아니라 비유이다.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은 각각 누구를 비유하는가?

종: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아들: 바로 자신

5. 우리가(유대인들도) 보기에는 이 농부들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농부들이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그럴 수 있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흔히 '눈에 뭐가 씌어서...'라고 한다. 혼수곤 눈에는 보이는 쉬운 것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에, 욕심에 눈이 멀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매사에 미리 대비해서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연애, 결혼, 직장, 자녀교육, 가치관, 인생관...)

6.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주인의 방법은 정상적인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이상한 농부와 이상한 주인, 이상한 아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대적자에게 하시는 이상한 예수. 이야기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특징이 있지만 분명하게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7. 이 비유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졌음, 최후의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종마다 시체가 되었다는 판에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고 결국 죽임을 당해서 포도원 바깥에 내어던짐을 당했다.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감사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켄넬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8. 그래서 심판이 따르는데 실제로 농부가 바뀌어 버린 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인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는 것: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말 것이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포도원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누리자.

9. '건축자가 버린 돌'은 어떤 돌일까?

전문가의 눈에 쓸모없는 것: 왜 하나님은 전문가의 뜻을 무시하는가? 전문가가 다른 데 눈이 팔려 제대로 분간치 못하기 때문이다. 건축자는 집 짓는 전문가다. 정상적이라면 전문가가 버린 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으니 기이한 일이다.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11).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했고 불품도 없었다.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 것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을 대속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는 그리 뛰어난 인물이 아닐 수 있다. 불신자들과 경쟁하면서 출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고 핀잔을 둘 수도 있다.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그렇다.

[13~17]

10.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종교적 권위로 억누르려다가(11:27-33) 완패를 당하고 난 후에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가로채려는 악한 농부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12:1-12). 종교적인 문제로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

정치적인 문제(납세)로 엮으려는 것이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교회사에도 개인적인 원한을 교리적으로 해결해버린 예가 수두룩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엮어서라도 이단으로 몰아버리면 성공하는 것이다.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더구나 당시에는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열심당원들이 설치된 시절이었다.

11.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당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외세를 배격하는 애국주의자들이다. 가이사에게 세금내는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의 이름을 참고로 해서 짐작해 보자.

헤롯당은 정치적인 사람들로 헤롯 가문을 위하여 외세를 등에 업은 사람들이다. 민심에 다소 이반적이지만 세금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인 셈이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무리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예수 죽이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 예수님의 답변이 어느 쪽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지간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12.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구성된 정부에서도 세금 문제는 예민하다. 세금을 올린다거나 일부 계층에 많이 거둔다면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이 세금이다. 더군다나 이것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세리를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던 시절 아닌가? 무엇을 노리고 이 문제를 던지는가?

'바치라' 하면 민심이 떠나갈 것이고,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좋은 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셈이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죄를 지었다는 구실을 헤롯당에게 제공하는 셈이다. 이것을 간파한 예수께서 흑백논리의 틈새를 빠져나오신 것은 기이한 지혜이다(17)

13.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14절 말씀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의도가 나쁘다.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는 말이지 결코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어디가 틀렸느냐?'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말은 맞다 해도 의도가 나쁘면 잘못된 말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이다. 악한 말이다. 칭찬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말대로 예수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외식이다(15)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고후 2:17)고 말한 바울이나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요한 일서 4:1-2) 사도 요한의 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첨꾼이나 입에 발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14. 당시에 인두세는 1년에 1데나리온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폐에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16). 예나 지금이나 화폐에는 반드시 인물 형상이나 그림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권력자들의 자기 과시, 근래에는 위폐 방지가 주목적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조차 제2계명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냥 대답하시면 뭘텐데 굳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반박이다. "너는 데나리온을 왜 갖고 다니니? 세금내려고?"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면 이미 진 계임이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로마가 발행한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이사'로 음역된 말은 일반 책에서 '케사르'라고 음역되었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시이저'이다)

15. '데나리온에 그려진 글과 화상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논리적인가?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데나리온에 그려진 글과 화상이 가이사의 것이라도 그 데나리온은 소유한 자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 아무런 논리적 상관관계도 없는 말을 이용하여 대적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이란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표현대로 뱀처럼 지혜로운 분이셨다.

대학시절에 술 안 먹는다고 구박을 더러 받았다. 특히 별나게 구는 친구에게 '금복주 이마에 털이 몇 개인지 아느냐? 술때나 한다는 자식이 그것도 모르냐?' 이래서 다시는 술 얘기를 못하게 해버렸다. 역시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질문이었다(참고로, 금복주는 대구에서 생산되는 소주로, 상표에 등장하는 술꾼의 대머리 한 가운데 네 가닥의 털이 두 개의 반원을 안팎으로 그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지혜도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성경은 이런 지혜마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다. 정독과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책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16.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면 가이사가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등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일부 위임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의미일 뿐이다. 국가에 순종하고, 부모나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정당하다. 반항하고 대립하기 전에 순종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

[18~27]

17.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다. 이것을 참고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경우는 많이 있어도 사두개인들과 논쟁한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를 설명해보자.

사두개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24): 이단이나 아니냐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느냐의 여부이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을 추가하거나 성경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 중대한 이단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8.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부활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 조상과 후손의 관계는? 언어는? 살았을 때 가졌던 원한 관계는?

부활은 현실의 연장이 아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민할 일이 아니다. 공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질적인 변화(가령, 3차원 존재가 4차원 존재로)가 있다면 숫자나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사와 같다는 말은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질서 속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다. 처음 창조되었던 것보다 더 나은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부활은 없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19.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자신들의 딜레마일까? 바리새인들의 딜레마일까?

바리새인들의 딜레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단지 바리새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좋은 재료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즐거워하였다(마 22:33-34).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곤란한 이런 질문이 없는가? 선악과? 삼위일체? 예정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을 받을지도 모른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20.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절묘한 질문을 던졌다. 자신들로서는 절묘한 질문이었는데 무슨 책망을 들었는가?

성경도 알지 못함: 성경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지 않는가(출3:6)?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함을 드러냄.

21.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귀족층이었다. 이들은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구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음(시 16:10, 욥 19:25, 사 26:19, 단 12:2)에도 굳이 출 3:6을 인용하여 기발한(?) 해석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의 글이라야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본래 이 표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차적인 의미를 살려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풀이하였다.

22.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있다. 성경의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아니다. 성경의 기적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부정하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색하려는 자들이 그렇다. 동정녀 탄생이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발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수준이 비슷한 하나님을 만드는 짓'이다.

바다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바다를 물통에 담아서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미 바다가 아니다. 짜다는 것 외에 무엇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 머리 속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일 뿐이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23.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날개가 생긴다는 말인가?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질서 속에 거하게 된다. 처음 창조되었던 몸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일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는 알기 어렵다.

24. 자식없이 죽은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계대결혼법, 수혼제도)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대를 잇는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대를 잇는다는 사상이 이스라엘에게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딸이 대를 잇는 경우까지 있었다. 거절하는 수도 있었다(신25, 룖, 창38).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핌: 남편도 자녀도 없는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적인 성격마저 띠고 있는 제도였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고대의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28~34]

25.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한 수 배우려는 것 같다: 답변을 잘 하신 것을 보고(28) 질문했으며, 예수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며(32),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다(34). 고수들의 멋진 한판을 보면서 하수들이 감탄하는 장면 같아 보인다(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실력과 진지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겠다(참고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6. 서기관이 물었는데 대답을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신 문장의 시작이다(신 6:4-5) 이 문장이 신명기의 인용문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면 훌륭하다. 최소한 문맥이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 한다. 그래야 인용문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27. 예수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만 위낙 익숙해서 별 감동이 없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계명 준수에만 온 힘을 기울이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비슷한 예로,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는 율법 전체를 '내가 싫은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라고 요약했단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열이 분명히 드러난다.

28.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248개의 규정과 365개의 금지령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들을 한 마디로 예수님처럼 산뜻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

계명의 근본정신보다는 규정에 얽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계명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계명의 근본정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우리나라 형법을 다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으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셈이다.

29. 십계명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정리한다면?

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 5계명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30.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면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잘 했음에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앞서고 행위가 따른다면 행위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음보다는 행위가 앞선다면 전혀 다른 허위나 외식이 될 수도 있다. 가정마다 효도의 모습이나 방법이 다르듯이 행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1.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믿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 결국 같은 말인 셈이다.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섬길 수 없다.

32.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면 좋겠는데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든지 말해보자.

배고르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고, 갈증이 나면 음료수를 마셔야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다. ‘네 몸과 같이’라는 말은 ‘네 자신과 같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영역은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이다.

33.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서 차비를 내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우리 아버지 차를 타는데 왜 차비를 내?”라고 했다. 그 뒷얘기는 생략하자. 이 할머니의 신앙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항목에 잘못이 있는가?

뜻을 다하여: 판단을 올바르게 잘하여 하나님을 섬기란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도록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뜻을 다하는 일이다. 뜻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내는 것을 가리켜 맹신이라고 한다.

34.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세 번이나 잠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면 어느 항목에 가장 문제가 있는가?

목숨을 다하여(힘을 다하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며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닌 육체적인 최선의 노력을 말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다하라는 말이다.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은 이것들 중 어디에 해당할까? 사람 따라 어느 한, 두 가지에 집중되는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야 할 것이다.

35.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감탄에 가까운 동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준 느낌이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의혹이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텐데(삼상 15:22, 사 1:11, 호 6:6, 말 1:8)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제물로 드리는 생축이 눈이 멀었고 찢겼고 간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이게 아닌데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풍토에서 이런 고민을 한대거나 고쳐보려는 노력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 내에서도 많이 생각한 끝에 바뀌어져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해 보라.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헌금궤를 쓰느냐, 헌금주머니를 풀리느냐... 따위 말이다. 이런 사소한 일도 어려운데 하물며 번제와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다.

[35~37]

36. 36절의 ‘주’, ‘내’, ‘내 주’, ‘내가’는 각각 누구인가?

주: 여호와, **내:** 다윗, **내 주:** 아도나이(메시아), **내가:** 여호와

37.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이다: 예수님 자신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거부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도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것처럼 으시대던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아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란 뜻이다.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즉, 다윗의 가문에 종속되지 아니한 온 인류의 메시아이다.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서기관들처럼 복음이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

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38. 백성이 왜 즐거운가?

평소에 많이 답답했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을 것: 다윗의 자손 메시야는 어쩌면 특권계층만을 위한 메시야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빼기고 있었을 것이다. 복음을 나 자신, 혹은 우리만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나누어야 한다.

[38~44]

39. 왜 어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는가?

- 1) **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제사장 복장과 비슷하게 표나는 옷(티를 내는 것)
- 2)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모양이다.
- 3) **상석(상좌)을 원하는 것:** 높임을 받고 싶은 자

40. 이들의 이런 행위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한 행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대접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였다. 반면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으로 살았다. 죽은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조차 극히 꺼렸다. 우리도 열심이 있고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할 때 서기관들과 같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믿는다고 티를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해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41. 종교적 열심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동시에 가능할까?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영역을 일정한 틀 속에만 한정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가능한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따로 뉘 수 없는 것이 따로 된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란 말이다.

42.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있을까?

남보다 열심이 있고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할 때: 전혀 무능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열심도 능력도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런 열심과 능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말이다. 남보다 잘 믿는다고 티를 내지 말고!

43. 이런 서기관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명예욕과 재물욕: 둘 다 취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둘 다 잘 다루는 신앙인은 정말로 존경해야 한다.

44. 율법학자요, 주로 기록이나,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서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 당시의 과부란 고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다. 그러니 힘으로 빼앗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가 힘들게, 극히 적은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을 것이다. 교회의 헌금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드러지는 것이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합부로 낭비를 하거나 자기 뜻대로 합부로 사용한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45. 가난한(실제로는 극빈자라는 뜻) 과부는 정말 적게 헌금했는가? 한 렘돈이 아니고 두 렘돈이잖아?

현재의 헌금함에서는 동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현재의 화폐 가치를 따질 때 동전은 헌금의 단위로는 너무 적은 셈이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하여 동전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자. 100원짜리 한 개는 너무나 작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두 개를 놓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렘돈이라는 단위가 그럴 정도로 작은 것이다. 렘돈은 하루 일당의 1/128에 해당한다.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나마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빵 한 조각으로 허기라도 면할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46. 두 렘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 100원짜리 두 개는 일본 동전으로 1엔이다'는 식이다. 렘돈은 헬라동전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동전의 명칭이다.

47. 부자가 칭찬을 들으려면 생활비 전부를 놓어야 하는가?

과부를 칭찬하려는 것이지 생활비를 다 놓으라는 말이나 부자를 비난하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한 부자가 있었을까? 그러면 부자 그만두고 과부처럼 살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부자라면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아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어느날 좋은 점수를 받아와서 아버지가 크게 칭찬을 했다. 좋은 점수라고 해봐야 잘 하는 아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인데... 이럴 때 이 아들이 '나는 그보다 훨씬 잘 하는데 칭찬도 않고...?' 한다면 잘못된 것과 같다.

별로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은 일을 칭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집나가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꼭 착한 말의 눈치를 봐야 되나? 가난한 과부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지 누구나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한 다거나 부자들을 책망하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48. 이 과부는 왜 생활비를 전부 다 넣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있는 것을 다 주는 것보다 많이 있는 데서 많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과부의 헌금은 부자가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쉬운 일이다. 그것을 소중히 평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고마운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고 애써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리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지, 내 노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룰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슨 그럴싸한 고수 하나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별 것 아닌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코흘리개 아이가 자기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아홉 입에도 쑤셔 넣을 때 그걸 받아먹는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해 보라. 과자 부스러기는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주면 더럽다고 피할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코물은 과자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면서도 기뻐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연보하는 이 과부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그 행위와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를 드려야 한다.

49. 가난한 과부의 전 생활비와 부자의 전 생활비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가치는 당연히 부자의 전 생활비다: 두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다른 사람이 도우려면 과부의 생활비를 대는 것은 쉬운 일이다. 비록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누군가가 딱한 사정을 알고 도우려면 간단하게 도울 수 있는 일이다. 워낙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다시 채울 수도 있다. 만약 부자가 전 재산을 연보궤에 넣었다면 아무도 이것을 채워주거나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다면 부자의 헌금이 훨씬 더 요긴하고 유용하다.

어떤 교회에는 재력있는 분들이 있어서 웬만한 일은 혼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과부가 드린 연보를 모아서 큰일을 한번 하려면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 작은 헌금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될 때 몇몇이 마음을 맞추면 어떨까? 그것도 어려우면 일이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목적헌금을 하면 어떨까요? 가령, 수재만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재만 돕기 헌금'을 하면 되고,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는 한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을 구입하는데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지는 헌금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헌금 아닐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노력하자.

50.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애초에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연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동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어느 친구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주일날 연보할 수 없어서 약속어음을 꿰었던답니다. 종이에 금액을 적고 '나중에 커서 꼭 갚겠습니다'라고 써서 헌금주머니에 넣었는데 선생님이 주인공을 찾아내서 장난쳤다고 야단을 몹시 쳤답니다. 어릴 적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어린 아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예물보다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 과부가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음 때문이었다.

51.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은 동시에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될 수 있다. 서기관들과 비교해 보자.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지만 과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겸손하다. 신앙의 핵심은 풍부한 외양과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과 순수한 본질에 있다.

마가복음 13장

[1~8]

1. 제자 중 하나가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제자: 건물의 웅장함, **플의 크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돔족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물은 공사를 시작한 지 50년이나 된 건축 중인 건물이다. 성전의 플은 360×460m이며, 한쪽 좌대의 높이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본다면 60m 높다. 골짜기에 웅벽처럼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을 채워서 평평하게 바닥을 만들어 세운 건물이다. 당시의 기술로는 경이적인 건물이었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건물이었다. 건물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플의 크기도 엄청난 것이었다.

예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의 뛰어난 외모처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집의 웅장함은 비극의 재료일 뿐이다. 당시의 기술로는 경이적인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2.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의 답변은 어느 정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대답일까?

죽을 죄에 해당함: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예수의 죄명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였음을 감안해보면 죽을 죄임이 틀림없다.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죄목이 성전모독죄였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다. 73년이나 걸려서 완공된 건물이 7년 만에 무너졌다. 성전의 벽 속에는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금을 찾느라고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고 한다.

3. 예수님은 성전에 무슨 원한이 많아서 성전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발언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고 있었기 때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성전의 시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짓고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 리일까?'라고 했다(대하 6:18).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손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건물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실 곳은 바로 예수 자신이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사람을 무게로 달아서 값을 매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4. 제자들은 '이런 일'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했다. 단순히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만 물은 것이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대화가 더 있었다는 말이다. 성전 파괴 외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 24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물은 것은 '이런 일',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대한 것이었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가지 일이다. 이런 오해를 예수님은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 감람산에서 질문을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겠지만 이 글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AD 70) 한참 뒤에 쓰여졌으므로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5.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어딘가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대체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답변하셨다: 성전의 종말에 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성전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주의 종말에 있다.

6. 우주적 종말이 시작되는 가장 큰 특징은(3-8)?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미혹하는 것, 난리, 지진, 기근: 종말의 시작은 미혹의 때이다. 인류의 장래가 장밋빛이라고 하는 것도 미혹인 셈이다. 지구의 한 쪽에는 살 빼다가 죽기도 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 발달된 기술이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발달된 과학 기술은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을 뿐이다. 전쟁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터지지만 하면 엄청난 인명이 억울하게 죽어간다. 많은 질병이 정복되었지만 이전에 도무지 알지 못했던 희귀한 질병으로 좌절한다. 과학의 발달은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다. ↔ 성전의 멸망이 임하기 전에도 자칭 메시야가 29년, AD 70년 멸망 전에 수 없이 많은 난리의 소문, 폭동이 있었으며 가짜 메시야는 종말이라고 주장했으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셨다.

7.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5) 두려워 말라(7)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종말을 들먹이며 겁을 주거든 미혹해 하는 자로 알아야 한다. 종말을 말하면서 겁을 주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그릇된 종말론자들의 가장 흔한 수법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며 재산을 포기하게 하거나 직장이나, 가정을 버리라고 하거든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라.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하지 않았다. 다급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도 오실 것같이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만 하셨다. 어떠한 유혹과 재앙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9~13]

8. 3-8절이 종말의 시작이라면 9-13은 종말의 진전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핍박(환난):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예루살렘의 박해, 유대인의 흠여집, 로마의 박해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로마의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은 하류층에 퍼지는 민간 신앙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박해가 오히려 상층부에까지 전달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9, 10).

9. 핍박에 대해서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는?

조심하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도 한다(마 10:16). 공권력에 의한 핍박도 있고(9절), 가정적인 핍박도 있다(12절). 신앙적인 무조건 공감하게 부딪혀서 장렬하게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 예수님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잘 빠져나가셨다. 물론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합부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만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가정적인 핍박(12절)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믿지 않는 부모는 모실 이유가 없다? 믿지 않는 형제와는 관계를 끊어버려라? 믿지 않는 남편과는 무조건 이혼하고? 그래야 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조심스런 태도로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낼 때 교회는 제대로 성장했다.

두려워 말라: 핍박을 당할 때 조심스럽게 처신하라고 하시면서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핍박에 굴복하고 아부하면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렸던 영터리 신학자나 목사들은 많은 글을 남겼지만 핍박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던 우리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글을 별로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고백이나 행적은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일본의 최고 학문을 공부한 검사들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정리되어 남겨진 것이다. 자신들을 취조하는 검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전했다. 그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10.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핍박이 어느 정도의 핍박일까?

형제를 내어주고 부자시간에 서로 죽게 하는 정도: 그래도 견디어 내야 한다. 이런 단련을 견디어 낼 때 교회는 제대로 성장해왔다. 국교로 인정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을 누릴 때면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11.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는 말씀대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공부도?

노력을 게을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두려움에 잡힌 자는 답변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며, 필요한 답을 성령이 인도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한다.

12. 가장 확실한 종말의 증거는?

복음이 만국에 전하여지는 것(10)

13.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비난이나 고통은 복이 되지 않는다. 어떤 고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내 이름을 인하여(13): 다니엘의 경우처럼 신앙문제가 아니라면 전혀 비난받을 수 없는 삶이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비난이나 고통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성질이 좋지 않거나 행실이 나빠서 얻어먹는 욕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만 빼면 멋진 놈인데...’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살아야 한다.

[14~27]

14.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징조로만 해석하

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몇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본문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

제자들의 질문이 성전 교물이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에 있는 자들(14)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30): '다'라는 말이 반드시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마 3:5, 행 2:17). 홍수 심판은 말세에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 말씀도 전 세계적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나타낼 것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D 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 재난들과 대한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피난을 갔다고 한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살육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예고편이었을 뿐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

15.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일차적으로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낸 사건을 가리킨다(단 9:27, 11:31, 12:11). 이차적으로는 메시아의 재림 전에 있을 박해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증거는 어느 구절일까?

26-27절: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Titus)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 성전의 파괴였으니 그렇게 보아야겠지만 핵심은 역시 종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6. 종말 직전에 있을 환난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급격하게 닥칠 것: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고, 빨리 도망하지 못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무자비(극심) 할 것(19): 아이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17.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망하기도 어렵고 양식을 얻기도 어려울 테니까.

18. 극심한 환난을 보면서 성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성도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20).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다(23).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13, 22).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는 것과 조심하라는 것이다. 때어 경성한 자세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때어 경성한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19. 임금이 행차를 하면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비켜 주어야 했다. 모두가 땅에 엎드리어 경배를 했다. 환난도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 누가 이것을 먼저 알고 표시를 내는가?

자연계(해, 달, 별, = 하늘의 권능): 아마 더 밝은 빛이 나타날 것이므로

20.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말씀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알아내려고 안달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마 10:4, 전 7:14).

21. 종말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믿지 말란다.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진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행 1:11, 마 24:27): 자신을 소개할 필요도 없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메시아는 아니다.

[28~37]

22. 1980년대에 예수 재림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본문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을 의미한다(1945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면 1985년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한 마디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시대의 표징을 보면서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연대측정을 위한 비밀메시지'라고?

2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1)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가? 타국으로 간 주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임을 강조.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24.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에 의거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모를 리가 없다(32절)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중대한 오해이다. 무슨 오해일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이런 차이마저 없다면 '삼위'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성경은 명백하게 일체를 주장하면서도 삼위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다. 무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발언이다. 알아도 자신의 영역이 아닐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경우처럼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발언 아닐까? 그렇다면 알았다는 뜻이냐고? 제발 그 쪽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하시는 의도에 관심을 두라는데도...

25. 35-36절은 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를 알아내라는 말인가?

아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 안다면 매일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날과 그 시에 맞추어서 깨면 될 일이다. 그 날에 맞추어서 준비하느라고 부산을 떼 것을 주인이 알면 혼날 것이다.

26. 본문은 말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등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5, 9, 23, 33, 35, 37)는 것은 다 같은 말이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지 몰라야 경성하는 사람의 못된 습성, 시험칠 날이 다가와야 공부하는 학생과 같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27.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는 표현은 다 같은 말이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가?

여섯 번: 반복해서 경고하신다. 34절은 아니다. 큰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작은 고기 같으니까!

28. 주인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36-37)면 자지도 말라는 얘기인가?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문지기이다(24)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지 도적이 오는지 살펴야 한다. 농사일을 맡은 종이 대문간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크게 귀증을 들을 것이다. 문지기는 깨어서 살피고 농사를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이다. 환영 준비 잘 하고 있라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하던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29. 이 주인은 예의도 없나 왜 남이 잠자는 시간에 도둑같이 들이닥치는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다. 본인 자신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 채 떠나기 때문이다. 왕권을 받으러 가서 몇 년씩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돌아온다 해도 지금처럼 정해진 시각에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는 낮이 더워서 밤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30. 종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한다.

31.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 하면서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한 채로 지금까지 종말이 아니다. 누구 놀리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이 언제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에 늘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33, 34, 37). 그래서 과거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헛갈리게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14장

1. 원래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는데 붙어있는 명절이라서 나중에는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눅 22:1). 간단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유월절: 출애굽 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밤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절: 출애굽 때 급히 빠져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딱딱한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는 절기

2. 명절에는 왜 말자고 했을까?

민요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는 수많은(약 10만?) 순례자들이 운집하였으며 대체로 예수께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3. 명절에는 말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명절에 죽이고 말았다. 왜?

자신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12, 21)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때문이 아니다.

4. 왜 하필이면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가? 문둥이는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는데?

아마 문둥병이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을 것이다.

5. 여자가 부은 향유의 용도와 가격은?

용도: 시신에 발라 악취를 제거하는 일,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

가격: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6. 구제에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께 허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 경우는 죽음을 눈앞에 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의 처사가 칭찬을 받은 것이다. 매번 이런다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식의 가르침은 좀 곤란하다.

7. 이 여자의 동기는 예수님의 의도와 같았을까?

1) 아마 아닐 것이다. 단순한 감사가 엄청난 일에 동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마치 억지로 진 십자가가 진정한 복으로 다가온 것처럼

2)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드린 점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번 답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8. 이 이야기는 순서상으로 여기가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굳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롯 유다 사이에 미움으로 그들의 추함과 대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9. 유다의 배신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보다 더 큰 죄악일텐데 특별한 동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또 배신자 유다에 대하여 그렇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럴까?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동기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유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감정이나 미움의 표시도 없이 '열 둘 중 하나'라고 말한다.

10. 이번 유월절 만찬은 예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재물로 드렸던 장소(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드디어 자신을 드리는 비장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았다. 반면에 적대적인 분위기 또한 최고조에 다다라 있었다. 전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싶어하신 모습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만찬을 함께 나눌 제자들에게조차 비밀스럽게 준비하셨다.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이 장소를 준비하시고는 몰래 선발대를 보낸 셈이다. 특별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지만 만찬 석상에 올려진 떡과 포도주도 바로 자신이였다. 제자들은 이 만찬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 흔히 하는 말로 다 차려진 상에 술가락만 들고 덤비는 격이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과정에 공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일을 준비하고 도운 사람이 누구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잔치 준비를 다 하셨다.

11. 원래 유월절 식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침울하고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다. 무엇 때문인지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배신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이다(18),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 때문이다(24).

12. 유다도 '내니이까'라고 했을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말대로라면 그 순간에 누가 그

룩에 손을 넣고 있는지 보면 범인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을 것이다(마 26:25)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 거듭되는 예수의 경고에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운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셨을 뿐,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했을 뿐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술 밥을 먹는 자'라는 말이다. 그 순간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13. 다음 빈 곳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을 보지 말고 넣어보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____에게 좋은 뻔하였느니라’

제계: 예수님은 유다가 있고 없고 그 길을 가야 할 몸이기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누가 되었건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14. 22~26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보자.

잘 가르치심: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어려운 것을 쉽게, 오래 기억토록 하는 것은 스승의 훌륭한 자질 중의 하나다. 제자들이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 교훈의 의미도 모른 채 몸과 피만 찾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현실에는 적지 않다!

헌신하심: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스승이다. 어려운 때 용돈 나눠 쓴 일도, 등록금 한번 대준 것도 못 잊는다. 하물며 목숨을 버리셨다면? 부하 장수가 임금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대대로 칭송하거늘, 말단 병사를 위해서 임금이 목숨을 버렸다면?

끝까지 돌아보심: 왜 다시는 마시지 않는가?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언젠가 새 만찬을 나눌 때가 있음을 가리킨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나눌 만찬을 기다리며,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평안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15.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어른들은 도장도 찍고 계약서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표시로 무엇을 했는가?

피를 뿌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이 죽었다. 피 없이는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 9:22)는 말과 같다. 제한적이어서 반복되어야 할 구약의 수많은 피뿌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언약의 피란 출 24:8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할 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16. 세 종류의 인간,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롯 유다, 마리아에 대해서 비교 평가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 좋은 머리 가지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명절에 예수를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피하자는 것이다. 많이 배우고 좋은 지위에 앉아서 겨우 잔머리나 굴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나름대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허물고 예수를 파아 내린다. 소위 신학자들 중에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적지 않다. 많이 배운 것,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많이 아는 것과 머리 좋은 것은 그만큼 더 해로울 수 있다.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함께 다니며 가르쳤음에도 스승을 배신하고 만다. 더구나 그는 헌금궤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돈을 언급하고 만다. 돈 문제에 걸려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돈의 유혹 앞에 당당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목사가 돈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추할까? 가롯 유다가 꼭 그 모양이다.

마리아: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뻐하셨다. 반면에 이를 비난하고 돈에만 온갖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추한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돈에 관심이 더 많은 유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곧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17.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27)는 말씀은 의역이다. 개역성경 난하주에 보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것이 원어식 표현이다. 실족한다는 말은 흔히 쓰는 말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다. 연예인이 한번 스캔들을 일으키면 생명이 끝나는 수도 있다. 제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막아야 하

는 것 아닌가?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래야 정상같은 데?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다. 우리의 과거, 온갖 추억이 깃든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다.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과 함께 새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중요한 선언이다.

18.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신다면 배신하지 않도록 용기를 준다면, 부인하지 말고 지조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후 다시 제자의 자리를 찾는 것에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위로가 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쉬울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실족하여도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다 깨어져야 할 것이기에 굳이 말리지 않은 셈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꼭 해야겠다고 우기면 놔두는 것처럼, 결국은 자신들의 교만을 다 깨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다.

19.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보자.

예수를 버리고 흩어지면 그들이 갈 곳은 예전 삶의 터전밖에 없다. 청운에 부풀어 고향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좇았는데 그 분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실망과 좌절로 다시 배를 타려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겠다는 뜻이다.

20.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의 어떤 점이 드러나는가?

다른 제자보다 우월함을 은연중에 드러냄: 결국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되지만 베드로는 결코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 교회의 겸손한 지도자는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태어났다.

[32~42]

21.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엄청난 고민이 있어도 끝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비밀로 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그리도 고민이 되었을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오셔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분이 막상 일이 닥치니까 두려워진 것인가?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것은 너무 약한 모습 아닌가?

일시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정신적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일까?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정신적인 고통일 것, 육체적인 고통보다 타인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스테반의 죽음의 경우를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

22. 혼자 기도하시러 가시지 기도도 하지 않을 세 제자를 왜 데리고 갔을까?

아마 위로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진짜 외로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것만애가 옆에 있어도 위로가 된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극에 달하였기에 이런 제자들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잠만자는 제자들이라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23.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족의 원인이 아닐까? 기도했더라면 실족하지 않았을까?(38)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였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좀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주원인일 것이다. 예수께서 잡혀 죽을 것과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 같다. 그러니까 졸고 잤지! 실족한 원인은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불신앙,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닐까?

24.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는가?

질문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힘을 요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옳바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거기에 맡김으로 평안을 되찾았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그렇게 자주 애용할 좋은 질문이 아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변하는 기도도 있다.

25.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유독 잘 조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38) 예배시간에 조는 것이 습관화된 것인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설교자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명확하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합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는 좀 곤란하다.

[43-52]

26. 유다가 배신하고 군인들에게 한 말(잡아 단단히 끌어가라)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44)?

실수하지 않게, 위험인물이니까, 쉽게 다루면 큰일난다: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

27.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긴 했지만 좀 과장을 해서라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

베드로의 용감성에 대하여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28. 잡으러 온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자포자기? 끝까지 최선의 방어?

저항하지 않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29.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무런 분노도 원한도 없는 듯 평온하다. 유다 개인에게는 전혀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은 듯 하다.

30. 별 4개 달린 장군이 강등되어 어느 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다면 엄청난 충격이다. 그만한 신분 변화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로 바뀐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열둘 중의 하나'란 말은 권위와 존경 그 자체였다. 영광스러운 이름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변하여 '예수를 파는 자'로 전락되었다.

31.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다.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죽는 짐승이 불쌍해서 눈물이라도 뿌리고 죽이는가? 그렇다면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아마 특이하게 생긴 악어의 눈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악어에게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본문에 있다면?

유다의 입맞춤: 랍비여, 즉 '존경하는 나의 스승이시여'라는 뜻이다. 이 말이 잡아야 할 자를 가리키는 배신의 신호로 쓰였다. 아 가증스러운 인간!

32.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왔느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항변인가? 책망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다음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강도처럼 다룬다고 내가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강도처럼 체포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33. 벼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은 누구일까? 베 홀이불이란 원어상 아주 귀한 고급 천이다.

아마 마가 자신일 것이다: 비밀스럽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나이드 가장 어려서 정식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 자다가 집 앞으로 지나가는 무리를 따라 왔다가... 아마 마지막 만찬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 같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겔세마네로 가고 마가는 잠을 잤을 것이다. 예수를 잡으러 가는 자들이 일단 식사 장소였던 마가의 집에 들이닥쳤을 테고, 뭔가 불길한 짐새를 뻔 마가는 잡자든 그대로 홀이불을 두르고 따라 갔을 수도 있다. 더구나 그가 두르고 있던 베 홀이불은 아주 귀한 고급 천이었으므로 부유했던 마가에게는 어울리는 것이었다.

34. 예수가 잡히시는 순간에 멋있는 제자는 하나도 없다. 장렬하게 죽거나 용감하게 싸운 자도 없다. 칼을 휘둘러 본 제자가 한 사람 있고 있었으니 체면이라도 세운 셈인가?

그나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휘둘렀는데 예수는 초능력을 발휘할 기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다들 도망가 버렸다. 몇 시간 전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그야,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줄로 생각하고 한 얘가지... 이럴 줄 알았나! 그런가?

[53-65]

35.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은 온통 불법투성이다. 어떤 점이 불법일까?

야간에 체포해서 바로 재판함: 중요한 소송은 야간 재판이 금지되었고, 이틀에 걸쳐 심리하도록 되어있었음

장소가 사택임: 산헤드린 공회는 광장이나 공회당에서 열려야 함

변호인이 없음

자백 외에 증거가 없음

형을 미리 정해두고 증거를 찾음(55)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심리 없음에도 유월절에 재판을 끝냄)

36. 재판을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의 고민은 무엇일까?

시간은 없는데 제대로 된 증인이 없는 것

37. 그래서 궁리한 방법은?

피고 자신의 말에서 고소할 근거를 찾음: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나마 권타기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대답을 않던 예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일종의 유도심문을 노린 셈이다.

38. 거짓 증인이 하는 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2:19)?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다. 요 2:19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지만 자신이 헐겠다는 뜻은 아니다. 예레미야보다도 더 표현이 약하다(렘 26:8-9). 오히려 성전된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악의적으로 곡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다른 증인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39.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신 19:16-20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합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한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면 이 거짓증인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나?

사형: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했으므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는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한다. 그럼에도 거짓 증인이 많았다는 것은 제사장장의 비호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40.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심문할 때 만약 변호사가 있었다면 어느 대목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나섰을까?

61절 하반절: 유도신문이기 때문이다.

41.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않으셨을까?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니까 살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이루려하심이다(사 53:7, 시 38:13-14).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셨다. 더구나 그 전에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시던 분이...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이시다.

42.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는 대답은 능력만 보여주면 신성모독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탁월한 인간이나, 선지자 정도였기 때문이다(11:9-10). 그러면 무슨 대답이 그렇게 참람한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뜻하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단 7:13절을 원용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을 뜻한다. 아무 말씀도 않으시던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노리는 바로 그 완벽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셨다. 대제사장이 길로야 분노, 슬픔, 고통의 표현으로 옷을 찢고 난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통쾌하였을까? 어리석은 놈! 누가 누구를 보고?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상징이기도 하다.

43.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투는?

하나님을 ‘헌송함을 자’라고 표현하는 것(6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대단히 두렵게 다루어서 부르지도 않았거니와 쓰는 것도 극도로 주의하였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도 않고 완곡하게 부르기 위한 표현이다. 형식상으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44.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아이들의 어떤 놀이와 비슷한가?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맞추어 보라는 말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지자냐는 것이다. 뒤에서 꼭 찌르고는 ‘어느 손가락?’ 하고 손을 내미는 것과 비슷하다.

45.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멀리서 동정을 살피다가 돌진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기도로 준비하여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만 믿고 큰소리치다가 철저히 무너지는 베드로

46. 아무런 용기도 없는 베드로가 무엇하러 멀찍이서라도 따라갔을까?

자신이 한 말도 있지만, 혹시라도 초능력을 발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47. 예수를 따르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바짝 따라가야 한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따라가면 실족하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어딘가 좀 논리적이지 못해 보인다. 베드로가 실족한 원인이 무얼

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것, 떨쩍이 따라간 것,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만 믿고 떨쩍 뿜 것 등이 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을 지적해서는 곤란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 미성숙이 원인 아니겠는가? 앞에서 든 것들은 그것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66~72]

48. 베드로의 정체가 어떻게 탄로 났을까?

볼빛에 모습이 드러난 것(67)과 말씨 때문(70, 갈릴리 사람, 마 26:73)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낸 대제사장의 비자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가끔 예수를 감시하거나 시험하는 일에 출장 다닌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숨어 있으면 잘 숨어있지 말은 왜 해서 놀리나? 별로 지혜롭지 않았던 모양이다. 말씨도 지방마다 달라서 단 한 두 마디로 출신 성분이 드러난다는 것도 참으로 묘한 일이다. 사람이 언뜻 보기에 비슷해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말이라도 지방마다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자의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9. 왜 부인해버렸을까?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제 정신이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진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50.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가장 능력 있는 사도요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비자: 작은 계집 종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 사람의 이야기에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위인전에는 결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51.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하고 베드로를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듣는 것과 당시의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 말일까?

무시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요 1:46)

52. 베드로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보면서 마가복음의 독자들,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

접중하는 로마의 핍박을 예상하면서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실수한 신자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교훈을 잘못 받은 사람은 '저 정도의 죄도 용서받았는데 이 정도야 용서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죄를 짓는다?

53. 회개하고 돌이킨 후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었을까? (참고, 벰전4:7, 5:8, 벰후3:17)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떨어질까 주의하라

54. 이번 일만 제외하면 베드로는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사나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가 얼마나 힘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55. (Nonsense Quiz) 예수를 부인한 그 날 이후 베드로에게는 병이 하나 생겼다. 일종의 정신병인데 깜짝 깜짝 놀라는 병이다. 물론 사전에도 없는 병인데 이름이 뭘까?

닭소리 알레르기(닭울음 놀람증)

마가복음 15장

[1~15]

-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공회를 한밤중에 열어서 사형을 언도했다(14:53-65). 새벽에 다시 모였다(1, 눅 22:66-71). 옛날 우리나라 국회도 날치기를 하느라고 한밤중에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열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단어는?
즉시: 새벽에 비상소집처럼 모여서 즉시 일을 처리하는 재빠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백성들이 알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 사형에 대한 언도는 이미 있었는데(14:64-65) 새벽에 급히 모여서 또 무슨 의논을 했을까?
처형 방법에 관한 논의 아니었을까? 사형을 선고할 때는 종교적인 죄였지만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죄목인 것으로 보아 종교적인 죄로 처형할 것이냐, 정치적인 죄로 처형할 것이냐는 논란이었을 것이다.
- 대제사장들이 정죄한 예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소한 죄목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 반란, 반역의 의미인 셈이다.
-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무슨 뜻일까?
빌라도: 정치적인 왕(사형에 해당함)
예수: 종교적인 왕(죄가 되지 않음)
-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일까?
고소하는 자들의 고소에 대하여 아무 대답을 않음, 최소한 부인은 하는 법인데?
- 빌라도가 보기에 전혀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길로 생각함(10) 어찌이노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14)
- 왜 전례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가? 바라바가 불쌍해서?
싸울 자르는 행위(내가 당선되기 싫어서 남을 먼저 당선시키는 것) 전례대로 죄수를 방면하는 것으로 예수를 놓아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약을 수이다. (바라바는 애국자요 민족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더 큰 이유는 아니다)
- 빌라도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찾아보자.
1) 자기의 판단대로 소신껏 처리하지 않았음
2) 민란을 두려워함
-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이 로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일은 이 글을 받는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독교는 로마에 반대하거나 위협스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다.
- 대제사장들의 어거지, 빌라도의 우유부단, 무리들의 잔꾀, 예수님의 작심이 합하여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

[16~32]

- 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자색옷: 내가 왕이라며 그렇다면 왕복을 입어야지. 왕복 흉내를 낸 것이다.
가시 면류관: 왕이라면 면류관을 써야지.
유대인의 왕으로 예우: 로마인들에게는 멸시의 표현이다. 왕이면 뭐하나 유대인인데?
갈대(가벼운 게 별로 아프겠나?) 툭툭치더라도 머리에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니...
침 뱉음: 멸시
꿇어 질함: 왕이라고 했으니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 (29-30)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 (31-3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을까?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느라고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14절의 채찍질 때문일 것: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저항의식을 빼앗기 위한 채찍질이었으니 무자비하기 그 지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채찍질에 기진하여 죽기까지 하였단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면서 더 이상의 매질을 하지 않은 것도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일 것이며 십자가 상에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44).

13.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을 소개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초대 교회의 유명인사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명칭이었을까?

14. 물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인 셈이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죄수들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왜 거부하시는가?

죽음을 자청한 분이 고통을 자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키케로(시세로)의 증언에 따르면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려 하지 않았다.

15.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너무나 간략하다(24). 너무나 끔찍하여 자세히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두들 잘 아는 장면이라서 묘사하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마가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

마가의 관심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묘사하고 있다. 무심하게 제비뽑는 군인들, 구레네 사람 시몬, 죄수들, 지나가는 사람들(일반 인이라기보다는 재판에 거뒀 증거를 대던 사람들), 조롱하기에 바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16.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 십자가 밑에서 피와 땀에 젖은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뽑는 사람들과 대조해 보자.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고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해질 수도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 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17. 예수를 처형하면서 왜 두 강도를 함께 처형했을까? 빌라도의 생각일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강도와 같은 파렴치범으로 보이게 하려고 피를 부린 걸까? 이사야 53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유대인의 왕을 모욕하려는 빌라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의 잔꾀일 수도 있고, 바라바의 일당을 처형하려고 미리 정해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사 53:12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의 자리는 원래는 바라바의 자리였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자리였다.

18. 처형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 빌라도는 예수를 정치적인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붙인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지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 정도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이 못난 인간들아!

19.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스스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포기하라는 유혹이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하던 사단의 그 유혹과 같은 것이다. 잠시 떠났던 사단이 마지막에 또 유혹하는 셈이다. 결국 예수를 모욕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된 셈인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만 것이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 회심하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 꼭 그렇다.

20. 조롱을 하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정한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적적인 능력(=남은 구원하였으되): 예수에게 메시아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자의에 의한 것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파볼지 말라!

21.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막 10:35~40):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런 자리인지 아느냐는 것이겠지만 겁도 없이 두 형제는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영풍한 욕심을 부렸다.

[33~47]

2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남긴 말씀은 가시였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마가는 한 마디밖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 한 마디는 무엇이며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다.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누군가를 끔찍하게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며칠 지나면 다시 살아나 회복될텐데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잠시라도 버려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잡관의 분리도 있을 수 없는 관계이다.

23.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 때 신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했을까?

언뜻 보면 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을 보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다.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고 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악의적인 반응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빨리 죽지 않도록 해서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는 뜻이다.

2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과 ‘엘리야’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혼동될 만큼 가까운 발음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혼동했을까?

혼동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5.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는 사람과 백부장을 대조해 보자.

백부장은 냉철하게 이 모든 일의 과정을 살펴보고 위대한 고백을 남겼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빠져서 되어지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조차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 애써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고집만을 부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진지하게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6. 주님께서 처절한 고난을 겪으시던 정오(제 6시)부터 오후 3시(제 9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일식이라도 해도 세 시간 동안은 불가! 그렇게 어둡지도 않은 법이다. 백부장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7. 왜 대낮에 어두움이 임하였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 예수님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도 그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 어쩌다가 전능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을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쏟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고서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셨고 이제 이루시고 계신다.

28.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드리워져 있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지성소는 일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엄숙한 곳이었다. 이 휘장이 왜 찢어졌는가?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친히 나아오라는 뜻이다. 무서운 권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9. 웬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 여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를 말해보자.

갈릴리에서 평소에 잘 섬기던 분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골(십자가, 장례)까지 따라온 것,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음에도 증인 자격이 없음에도 끝까지 따름: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들의 말은 증인의 효력도 없었으며 사람숫자에 넣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헌신한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말없이 섬겼던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30. 빌라도가 쉽게 시체를 내 준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을 자신과 요셉에게서 찾아보자.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처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짜 정치범이었다면 결코 내어줄 수가 없다.

요셉에게: 존귀한 공회원이라면 중진급 의원인 셈이다. 나름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31.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께서 빠르게 운명하셨음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모진 체적 때문이었을 것: 빌라도는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병사들에 의해서 악랄하게 다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람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증언할까?

빌라도: 백부장에게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확실하다고 하더라. 명령에 죽고 사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거짓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자들: 멀리서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고 무덤까지 확인하고 돌아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시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직접 내렸으며 세마포로 싸서 내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

백부장: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운명했으며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기 전에 분명히 확인했다.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소위 가현설이라고 잠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만 했을 뿐 실제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라는 등 온갖 이설이 다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살아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1.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부활이 주일 새벽이면 어떻게 사흘만인가?
가장 짧은 2박 3일인 셈이다. 한국식으로는 이틀이면 2살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흘 만에'라는 표현과 조금 차이가 있다. 아마도 유대식 '사흘 만에'라고 보아야겠다.
2. 이 세 여자들의 이름을 어디에서 봤더라?
막 15:40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대표로 기록한 것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두 명은 무덤까지 확인했다.
3. 이 여자들을 대단히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자들도 도망가 버린 판에 장례를 다 치르기까지 죽음을 지켜보았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감
4. 이 여자들은 전혀 겁이 없었는가?
아니다. 걱정도 있었고 막상 천사를 만나고는 무서워 말도 하지 못했다: 예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고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를 귀신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겁이 많은 모습이 본래 모습일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낸 것이다.
5.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대책없는 여자들이다. 어떤 점이 그런가?
죽은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찾아감: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며 더구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는 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 두려움, 냄새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무덤 문을 굴릴 방법도 없이 무작정: 보통은 돌무덤 앞에 홈을 파서 큰 돌을 경사지게 막아둔다. 열려면 경사로를 따라 돌을 굴러 올려야 한다.
사랑이 지극하면 때로는 이렇게 무대책(국경 초월, 율법 초월, 전통 초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체를 손대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척 꺼리는 일이다. 더구나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기심으로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권력을 잃거나 죽으면 다 흩어진다.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정성을 다 하려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사랑을 베푸셨는지 알 수 있다. 유일한 홈이 '밀지 못했다'는 것이다.
6.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런 일이었다. 향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본다면 언제 샀을까?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해지고 난 후에 샀을 것이다.
7.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을 '매우 일찍이(어두울 때) 해 돋은 때에'란다. 마가는 바보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헛갈리게 썼을까?
어두울 때 집을 나섰고 해 돋은 때에 무덤에 도착했을 것: 다른 복음서의 표현도 새벽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마태-마, 마르-마, 루카-마, 요한-마). 이 시간은 기독교가 태어나는 놀라운 시간이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간에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모른 채 걱정하며 무덤을 찾아갔다.
8.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불러모아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셈이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부부가 회복을 위해서 처음 만났던 곳을 찾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원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다. 유월절이 다가옴에 따라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곳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온갖 추억이 깃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다.
9.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라는 점 외에 달리 그럴 이유가 있다면?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실의에 빠져 고개를 돌지도 못하고 있을 베드로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10.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까지 그랬을까? 제자들에게 전하지 못했을까?
초기 증상이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말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 복음서를 끝냈다(8). 예수의 지상사역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11. 많은 고대 사본에는 8절 이후의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마가는 8절까지만 기록했고 그 다음 부분은 초대교회가 덧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인 부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음, 새로운 사명을 주심: 성경을 합부로 덧붙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현대의 모든 교회가 일치를 본다고 해도 성경을 고쳐 쓸 수는 없다. 다만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대 교회가 수용한 것'은 정경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 부분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초대교회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점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성경의 형성과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척되었을 것이다.

[9~20]

12.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한다. 사용된 단어의 빈도나 의미, 표현 양식의 차이점도 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도 어떤 점에서 연결이 어색한가?

막달라 마리아를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이 본래부터 마가복음의 일부였다면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란 표현은 마리아가 처음 등장할 때(15장이나 16장 초)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는 표현도 중복이다(1, 9절).

13. 제자들은 초지일관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기록을 읽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랬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학창 시절에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 선생이 되면 오히려 말썽꾸러기들을 잘 가르친다고 한다.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아마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유익했을 것이다. '너희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믿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랬다'는 말은 대단히 위력적인 말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의도로 부끄러운 기록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먼 훗날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정상이 아닐까? 믿는 우리가 비정상인가? 복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다.

14.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여러가지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을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잘 믿지 않아서 그런가?

복음이 처음에 전하여질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선교사들의 보고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믿는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15.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본문을 근거로 대답한다면?

여자들에게는 문을 굴릴 능력도 없고,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고,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도 않았다.

16.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로마미가 암미로, 로루하 마가 루하마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다.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것처럼 이름(?)이 바뀐 것이 보인다. 무슨 이름이 어떻게 변했는가?

열 두 제자가 열 한 제자'로:

17.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원칙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인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긴 셈이다. 결국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18.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란다. 믿고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세례는 믿는 것에 대한 외적 표현일 뿐이다.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19. 17-18절은 믿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다.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이지 미신처럼,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말이 아니다. 불을 처음 붙일 때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잘 타고 있는 불에 불쏘시개를 자꾸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불 피우는 일과 관계없이 불쏘시개로 불장난을 해서는 더욱 안 된다.